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44호
2022년 12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아듀 2022~ 헬로 2023!”



남가주 공대 동창회(회장 남종우)의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3일 LA의 '작가의 집'에서 열렸다. 동문회 창립 반세기 기념책자 출판 기념회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동문 7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날 배제현(전기 75) 동문이 2023년 신입회장으로 선임됐다.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며 활짝 웃고 있다.

‘SNUAA 스칼러’ 프로그램에 동문 ‘지명장학금’ 신청 늘어나 삼익악기·고국화·(고)유시영 동문 각각 1만달러 기부 한홍택 박사 부부 5만달러 ... 새해에도 10명 선발, 시상

미주 동창회의 ‘SNUAA 스칼러’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삼익악기(대표 김종섭·한국 총동창회 회장)가 ‘지명 장학금’ 1만 달러를 쾌척했다. 고국화(공대 56) 동문과 (고) 유시영(문리대 68) 동문의 유족도 각각 1만 달러를 기부, ‘SNUAA 스칼러’의 지명 장학금 기부자는 지금까지 모두 4명이 됐다.

가장 먼저 지명장학금을 낸 동문은 한홍택(공대 60·UCLA 석좌교수) 박사

로 5만 달러를 기부했다. 한 박사는 부인 백훈(미대 61) 동문과 함께 ‘한백 장학금’을 만들어 매년 1명의 ‘SNUAA 스칼러’를 지원하고 있다.

‘SNUAA 스칼러’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게 된 고국화 동문은 한국 최초의 여성공학박사다. 부군인 고광국(공대 54) 박사와 함께 특수 유탄유 제조 회사를 창업해 부를 일궜다.

(고) 유시영 동문의 부인 유은주 여사는 지난 11월 타계한 고인의 이름을 딴 지명 장학금을 신청, 1만 달러를 보내와 감동

을 안겼다.<관련기사=2면>

지명 장학금은 기부자 이름을 딴 스칼러십으로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SNUAA 스칼러’는 리더십과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한국계 인재들을 발굴, 시상하고 그들이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사회에 공헌하도록 지원 및 인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필요에 의해 지급하는 여니 장학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따라 스칼러들이 우리 동창회와 주류사회의 교량 역할을 하

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도 주요 목적중의 하나이다.

미주동창회는 지난 6월 제 1회 ‘SNUAA 스칼러’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10명의 대학생을 선발, 1인당 1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프로그램을 실무총괄하고 있는 한홍택 박사는 새해에도 10명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라며 많은 동문들이 지명장학금 프로그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310-760-1891

▲이메일: scholarship@snuaa.org

제 32차 평의원 회의, 라스베가스에서 개막 내년 6월 ... 학술대회 등 최적의 입지조건

미주 동창회의 제 32차 평의원 회의가 내년 6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다.

이상강(의대 70) 미주 동창회 차기 회장은 라스베가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자 IT 및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를 비롯, 대규모 컨퍼런스가 열리는 등 평의원 회의를 치르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라스베가스의 여러 호텔 및 이벤트 회사들과 접촉, 조율

중에 있다며 확정대는 대로 세부일정을 수립,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기 회장의 임기는 제 32차 평의원 회의 개막과 함께 시작된다.

평의원 회의는 미주 동창회 최고 의결기구로 매년 한차례 열린다.

미주 동창회 전직 회장들과 각 지부 동창회장, 종신이사 등이 당연직 평원으로 회의에 참가하게 된다.

“서울대인의 금지는 동창회비납부에서부터”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폴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유시영(문리대 68) 전 커네티컷 회장 타계

아내 유은주 여사와 홈리스 사역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동창회에 '지명장학금' 보내며 서울대에 마지막 봉사 '감동'

한달 전 쯤 편지 한 통이 미주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됐다. 커네티컷주의 유은주님이 보낸 서신이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체크 한 장과 함께 부고가 들어 있었다. 남편 유시영(물리학과 68) 동문이 11월 4일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과 함께 1만 달러의 체크를 보내왔다.

유 동문의 부음소식은 미주 동창회 임원진에 즉각 전파됐다. "동창회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앞장서 도와준 분이었는데..." 모두들 유 동문의 갑작스런 타계소식에 할 말을 잃었다.

노명호 미주동창회장의 위로 전화를 받은 유은주 여사는 "남편은 평소 자신이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동창회는 그분의 분신이나 다름없었다. 저도 미력이나마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커네티컷) 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여사는 "남편 명의를 '지명 장학금'은 고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서울대학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며 "동창회가 고인을 기억해 주면 고맙겠다"고 울먹였다.

유 동문은 지난 2017년 커네티컷 동창회를 창립, 미주 동창회의 26번째 지부로 등록했다. 초대 회장에 선출된 고인은 4년여를 봉사, 동창회의 기틀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례예배는 지난 12월 4일 예일대 인근에 소재한 뉴헤이븐의 론 클럽(Lawn Club)에서 엄수됐다.

서울대와 경기도 동문들, 부부가 사역한 '아가페 노숙자 교회' 교인들, 그리고 유 동문 부부와 함께 홈리스 선교를 펼친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유 동문의 아내 유은주 여사에게 보내는 편지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사랑하는 아내 당신에게"로 시작되는 편지에서 유 동문은 "당신의 손을 잡고 하루 하루 힘을 얻고 살아감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적었다. 유 동문은 이어 "사랑과 헌신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오. 사랑하는 남편 시영!"이라며

편지를 맺었다.

노명호 미주 동창회장을 대신해 장례예배에 참석한 신응남 직전 회장은 조사에서 "유 동문은 투병 중에도 미주 동창회 인터넷 신문을 위해 애정과 헌신을 쏟

님 안에서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고인을 기렸다.

토마스 헤이스팅스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대한 커다란 열정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

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 예일대 법대 졸업을 앞둔 예비 법조인이었다는 것.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판사인 이른바 '금수저'였다. 졸업 후 첫 월급을 탄 윌리엄스는 홈리스 사역에 보태쓰라며 선뜻 2,000 달러를 보내왔다. 이같은 사연을 전한 윌리엄스는 "유 장로님이 꼭 그리울 것"이라며 울먹였다.

유 동문 부부는 20여년 전 아가페 교회를 창립, 예일대 부근의 많은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펼쳐 불우이웃을 돕는 기독교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노숙자 선교를 통한 커뮤니티 봉사를 높이 평가한 커네티컷 주지사와 뉴헤이븐 시장 등 많은 주류사회 공직자들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LA에서 열린 제 31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선 모교 총장상을 받았다.

컴퓨터 네트워킹 회사에서 40여년을 근무한 유 동문은 2년 전 은퇴, 아가페 교회 대표를 맡는 한편 예일대 신학대에 등록, 못다한 신학공부를 이어갔다.

언젠가 유 동문은 아가페 교회에 자원봉사하러 나온 9학년 여학생 얘기를 들려줬다. 첫날 홈리스와 만나 심장이 뛰는 감동을 느껴 이후 거의 매주 빠짐없이 봉사를 나와 이제는 아가페 교회의 보배가 됐다는 것이다.

유 동문과 얽힌 사연은 동문들 사이에서도 끊이지 않고 회자되고 있다. 봉사의 현장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커플이 넷이나 된다. 이들 모두 앞으로 홈리스 사역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해 흐뭇해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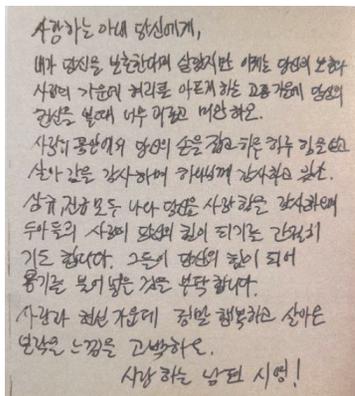
유 동문의 염원은 매우 소박했다. 은행 차압된 집을 구해 이 추운 겨울에 노숙자들이 몇개월이나마 더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다. 유족은 유 동문과 42년을 함께한 부인 유은주 여사와 두 아들 상규(Samuel)와 진규(David), 그리고 손주 현진(Jacob)과 은경(Harper)이 있다.

한편 유 동문의 '지명 장학금'은 내년 상반기 선발되는 'SNUAA 스칼라' 중 유족 측이 지명하는 학생이 받게 된다.

예일대 변호사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며 '눈물' 20년 전 창립 아가페 선교회, 노숙자들 위한 쉼터 '조용한 실천자' '아낌없이 베푸는 삶' 애도 이어져



(고)유시영 동문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숙자 사역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고)유시영 동문이 아내 유은주 선교사에게 남긴 편지. 부부는 42년을 함께 했다.



았으며 고인이 사랑했던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낸, 우리 모두의 잊지 못할 진정한 친구"라고 그의 타계를 애도했다.

특히 고인은 지난 20여년 평생의 반려자인 유은주 선교사와 함께 홈리스 사역을 감당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다.

김창수(의대 52) 동문은 "고인과 50여년이나 가까이 지냈다"며 "유 동문은 조용한 실천자, 아낌없이 베푸는 이타주의자, 친구들과 지역사회를 사랑하며 하나

며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런 환영을 받으시리라 믿는다"고 조사를 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이는 티나 윌리엄스 변호사. 15년 전 예일대 법대 재학 중 아가페 교회의 노숙자 사역을 도왔다. 윌리엄스는 고인과 어려웠던 옛날을 회고하며 조가로 고인의 애창곡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 조문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윌리엄스는 유 동문과는 각별한 사이였다. 처음엔 윌리엄스가 홈리스인줄 알았다고 한다. 자원봉사 3주째 되던 날 처음

미주 동창회보 모바일로 보세요

최근 미주 동창회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면서 휴대폰 등 모바일에서도 동창회보 기사를 비롯한 동창회 알림, 서비스 등의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www.snuaa.org)에 들어가셔서 상단 왼쪽의 사이트 목록 을 클릭하시면 NEWS가 나옵니다. 미주 동창회보를 누르시면 지난 호(pdf file)가 연도별, 월별로 일목정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부(chapters) 소식과 한국 동창회, 뮤직 비디오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장진영(음대 88) 동문의 지휘로 열린 남가주 동문합창단 공연. 앙코르 요청이 쇄도하자 즉석에서 '축배의 노래'를 불러 화답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동문들을 위로했다.

남가주 합창단 · 음대 공동 주관 '가을음악회' 400여 동문 콜변대 지퍼홀 가득 메워 '성황'

지난 11월 19일 거의 3년만에 대면행사로 열린 남가주 가을음악회에 400여 동문들이 공연장인 콜변대 지퍼홀을 가득 메워 성황을 이뤘다.

첫 출연한 아티스트는 대금주자 박종대(음대 64) 동문.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음악 가운데 대표적인 곡인 영산회상 중 '유초신지곡'을 연주,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

이어 테너 김일두(음대 98) 동문이 피아니스트 제갈소망(음대 03) 동문의 반주에 맞춰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꽃노래'를 열창, 열띤 박수를 받았다.

남가주 동문합창단이 무대에 오르자 환호가 터져나왔다. 지휘는 장진영(음대 88), 반주는 피아니스트 황만영(음대 84) 동문이 맡았다. 첫 곡은 '추억을 더듬어 보세요'(Try to Remember). 이어 'Autumn Leaves',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다음 프로그램은 첼로(김원선 음대 04)와 하프(윤희진 음대 99) 이중주. 'History of Tango' 등 두 곡을 연주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소프라노 김주혜(음대 06) 동문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를 불러 무대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아(음대 01), 첼리스트 김원선(음대 04), 피아니스트 김순진(음대 84) 동문의 'Widmung from Myrthen'(슈만) 연주 역시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날 공연의 피날레는 남가주 동문합창단 몫이었다. 김주연(음대 91) 동문이 소프라노 솔로로 참여한 가운데 김효균 작사·작곡의 '눈'(Snow)을 불렀다. 지휘자 장진영이 편곡한 '첫 사랑'에는 조은아(음대 89) 동문이 솔로리스트로 출연했다.

마지막 곡은 송길자 작사·임금수 작곡의 '강 건너 봄이 오듯'. 앙코르가 쇄도하자 합창단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Brindisi)로 화답했다. 이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청중과 다 함께 부르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가을음악회는 남가주 동문합창단(단장 김병완 · 공대 58)과 음대 동창회(회장 유혜연 · 음대 78)가 함께 주관하는 행사로 연례행사로 자리잡았다.

김 단장은 "지난 8월부터 오늘 행사를 준비했다"며 "11월 감사의 계절에 열린 이 음악회가 동문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유혜연 음대회장도 "코로나로 인해 외출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시간에도 음악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었다"며 "오랜만에 올리는 무대를 합창단과 함께 할 수 있어 기뻐"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영락교회 소망관(1721 N. Broadway, LA)에서 연습을 한다. 문의: (310) 502-9513(김병완 단장)

신년 하례식 줄이어

남가주 총동창회 2월 4일, 미시건 1월 21일

송년 모임 대신 신년하례식을 갖는 동창회가 늘어나고 있다.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박재환)는 2023년 1월 12일(목) LA '작가의 집'에서 이사회를 갖는다. 이어 2월 4일(토) 노워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총회 겸 회장 이취임식을 갖는다.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회장 이경희)도 신년하례식을 갖는다. 1월 21일(토) 한인타운의 용수산 식당. 회비는 60달러(부부 100달러). 이날 2023년 신입회장

도 뽑는다.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회장 양수진)도 신년 모임이 예정돼 있다. 1월 14일(토) 양 회장의 라미라다 자택 클럽하우스.

남가주 사대 동창회(회장 김희경)는 1월 21일(토) '작가의 집'에서 새해 모임을 갖는다.

회비는 100달러(부부 150달러).

미시건 동창회(회장 이광진)도 송년 모임 대신 신년 하례식을 갖는다.

1월 21일(토) 노비 시빅센터.

아프리카 차드에 첫 '벼 수확' 임헌진(간호대 74) 동문 기적 일귀 미주 동창회 2천달러 기부, 격려해

아프리카 차드에서 벼농사를 짓는 한편 간이 보건소와 학교를 세우는 등 빈민사역에 힘쓰고 있는 임헌진(간호대 74 · 10월호 참조) 동문이 지난 11월 16일 현지에서 추수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추수에는 차드 농업부 장관도 참석해 "몇년 째 가뭄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처럼 풍년이 들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며 고마워했다.

당초 추수는 차드의 건기인 12월 중순에 할 예정이었으나 벼가 잘 익어 앞당겨 수확하게 됐다.

임 동문은 10년 전 차드로 이주, 말바(Madba)에서 사역하고 있다. 벼농사

는 지난 2018년 처음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한국서 벼농사 전문가인 농대 동문 한 분이 현지에 맞는 법씨를 제공하고 지도한 덕분에 이번에 추수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임 동문은 한국과 미국내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35에이커에 이르는 땅을 구입, 농장으로 재개발해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등 차드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미주 동창회는 '노빌레스 오블리주'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임 동문에 2,000 달러를 송금, 격려했다.

취재=이호진(간호대 74)



임헌진(간호대 74) 동문이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차드의 한 농장에서 주민들이 벼를 수확하며 기뻐하고 있다. 추수에는 차드의 농업부 장관도 참석, 현지인들을 격려했다.

지부 동창회장 세대교체 '뚜렷' 관악세대가 '대세' ... 90년대 학번도

각 지역 동창회장의 세대교체가 눈에 띄게 이뤄지고 있다.

미주 동창회의 27개 지부 중 새해에 60년대 학번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곳은 남가주와 시카고 등 두군데 뿐이다.

반면 80년대 학번이 회장인 곳은 워싱턴 D.C.와 미시건, 미네소타 등 7군데나 된다.

가장 많은 학번은 70년대. 뉴욕을 비롯해 뉴잉글랜드, 북가주, 워싱턴(시애틀) 등 12군데 동창회는 70년대 학번이 회장을 맡고 있다.

심지어 90년대 학번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곳도 있다. 샌디에고와 하틀랜드, 유타 등 세 곳이다.

2024년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회장은 12월 현재 60년대 학번이 없다. 60년대 학번은 대부분

2선으로 물러나고 후배들이 리더십을 물려받게 된다. 북가주는 김범섭(공대 79), 시카고는 조규승(문리대 72) 동문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진다.

이같은 현상은 미주 동창회가 각 지역 관악연대 활성화를 적극 지원, 젊은 세대를 동창회의 전면으로 이끌어냄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주 동창회는 최근 총 2만 달러를 주요 지역 관악연대에 배분, 젊은 세대의 행사를 적극 지원한 바 있다.

노명호 미주 동창회장은 앞으로 관악연대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들 관악세대가 동창회를 이끌어 가야 젊은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편의 신장기부 ... 덩으로 사는 삶 성격도 취미도 식성도 안맞는데 이젠 ‘일심동체’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 간절히 살아야 할 이유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지 10년이 되어온다. 죽음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고 살다가 신경내과 주치의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식해야겠는데요?”하는 날이 마치 사형 선고받는 날 같았다.

매일 매일 사는 것이 조금씩 죽음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긴해도 죽음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나도 이런 큰 수술이 없었다면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았을 것이다.

게으른 내게 정신 번쩍 들게한 사건이었고, 남편(이병성·공대 74)에 대해,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멀리 사는 동창들의 성원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한국에서의 치료를 위한 장기 체류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우렁각시 같았던 도움의 손길들 - 형제 자매 친구 교우 스승을 생각하면 인간 관계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계기였다.

도움을 받은 만큼 그 분들에게 바로 되갚는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라도 돌려주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던데 조금은 철이 든 듯 싶고 남은 인생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의사로부터 신장이식을 해야한다는 선고를 받고 나서, 세상이 다 끝났다 싶어 울며불며 지냈다. 친구들도 교인들도 위로 차 방문해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사무실 뒤편의 은밀한 장소에서 그랬어도 단체 울음소리에 놀란 직원들은 무슨 일인가 의아하게 바라보곤 했다. 남편은 나를 달래려 자신의 신장을 줄테니 염려말라고 위로했다.

그 말을 듣고나니 몸 상태가 호전된 것은 아닌데 마음이 점차 안정이 되어갔다.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면 그냥 받아들이자고 생각을 바꾸니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

생김새, 부모, 형제, 선천적인 질병 등의 타고난 것은 수단을 써서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나의 병도 그랬다. 선천과 같은 약한 신장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유전자 변이로 인해 선천적으로 신장이 나뻐는데, 다낭성 신장질환이었다.

증세가 초기엔 안 나타나서 모르고 지내다가 2011년에 이식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고 무척 놀랐다. 주치의를 내과주치의에서 신장주치의로 바꾸고 UCLA병원에서 이식준비검사를 시작했다.

신장기증자를 형제나 자매 가운데 찾

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나의 남동생 셋은 모두 나와 같이 좋지 않은 신장을 가지고 있어서 나누어 가질 형편이 되질 못하였다.

다행히 혈액형이 같은 남편의 것을 받기로 하고 일단 큰 걱정을 덜었다 싶었는데, 이곳 UCLA 의사와 상담을 하니 50세 넘은 사람의 신장은 받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나?

내가 다급한 마음에 “겉은 50이 넘어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속은 젊다”고 의사에게 애원하듯 매달리니 내가 생각해

야한다.

그 기간이 평균 5년 이상이라니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는 혈액형이 0형이어서 그 기간이 더 걸려 7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참을성 없는 나를 이번 기회에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려 작정한 듯 싶었다.

6개월을 소비한 끝에 UCLA 신장센터에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남편의 신장을 안받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장을 주는 사람의 건강도 무시할 수 없는데 고령의 Donor는 건강상 리스크가 있

주치의가 되어서 특별한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한덕종 선생님은 신장이식분야에서 세계최고로 알려진 분이신데 마침 여고동기가 그분의 아내여서 더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일이 톱니바퀴 맞듯 척척 진행이 되어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안도감이 들었다. 남편을 검사한 결과는 건강하고 혈압도 정상이어서 기증자로 적합하단 소견을 받고 조직검사에서는 80%가 맞아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맞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좋은 소식을 받았다.

준비기간 6개월 동안은 투석을 받으며 기다리다가, 2013년 1월 3일 새해 첫 환자로 남편과 내가 동시에 입원하여 A수술실의 남편의 신장을 받아 B수술실의 내게 이식한 후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남편은 이식 후에 나머지 신장이 오히려 더 활발히 작동을 하여 정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 수영, 마라톤, 자전거에 경비행기 조종까지 아무 문제없이 즐기며 살고있다.

이식을 받은 나는 면역억제제를 평생 먹으며 스테로이드로 내게 이사온 신장을 달래며 살살 살고있지만 덩으로 사는 삶을 감사하며 살고있다.

평생 성격도 취미도 식성도 안맞는 부부였다가 막판에 신장하나 맞아서 만루 홈런 친듯 추앙을 받고 있는 남편.

남편의 동창들은 부부 일심동체되었다며 덕담을 하면서도 뒤에선 너때문에 부부 애정도를 테스트 받는다며 꾸밈도 한다. 아내들이 모두들 질문한다나? 당신도 콩팥 하나 기꺼이 떼어줄 수 있는냐고.

병을 알게 되고 수술받고 돌아오기까지 주변의 친지와 교인들은 새벽기도로 중보 기도나 혹은 단체로 순번을 돌아가며 나를 위해 기도했다.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의 기도 사슬도 든든했다.

내 뒤에서 돕는 많은 이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것이라 생각하면 하루 한 시간도 허투루 살 일이 아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 간절히 살아야 할 이유이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삶 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건 없고 믿는 삶.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이다.

우리 모두는 기적을 이루며 사는 중이다.



▲ 신장을 기증한 남편과 함께 한국 아산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 이식수술한지 10주년을 맞는다. 건강을 되찾아 ‘부부 일심동체’란 말을 실감하며 살고 있다.

UCLA는 ‘고령’ 이유 거부, 한국서 이식 인간관계의 소중함 새삼 느낀 계기돼 “우리 모두는 기적을 이루며 사는 중”

도 우스웠다. 토끼간을 빼먹으려는 거북이가 된 듯 별주부전이 생각난 탓이다.

같은 학번으로 생일이 늦을 뿐인 남편을 어리다고 타박하고 종종 놀리곤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영계와 결혼할 걸 그랬다”는 푸념이 나왔다. 가족 중에서 찾지 못하면 신장센터에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으므로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시 낙담했다.

대책없이 집에 박혀 울며지내던 내게 한국의 여고 동창들이 연락을 했다. 신장이식은 한국이 훨씬 잘하니 일단 한국으로 나와 길을 알아보자며 병원과 의사를 다 수소문해 놓았다고 한다.

의사인 친구들의 배려였다. 바로 한국으로 나가 아산병원의 한덕종 교수님이



동창회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부터

연 100 달러 ... 동창회비 제작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usa30@gmail.com

김향자(약대 61) 동문의 춤인생 70년 시월드, ‘코리아하우스’ 건립기금모금 공연 등 재능기부 진도북춤에 매료돼 …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수상 ‘영예’

“퀴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 나의 춤 인생 70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이다. 여고 3학년 때 얘기다. 교내 매점에서 우연히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만났다. “향자야, 너 무용과 간다며?” 선생님도 내가 이화여대 체육과에 지망한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

체육과에 무용전공이 있어 이대 진학을 결심한 터였다. 친구들 사이에도 나의 ‘체육과 진학’은 아주 널리 회자됐었다. ‘공부도 잘하는 애가 왜 무용을?’

선생님이 나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다. “엄마, 대학에서 무용을 배우고 뭘 할 거니? 사회에 무엇으로 공헌할 수 있겠니. 한국사회에서 네 춤을 받아줄 것 같아.” 그러더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는 경기여고에서 너희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길렀다. 학교로서도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네게 기대하는 것이 있단다.” 선생님의 말씀에 적잖이 당황했다. “퀴바디스 도미네.” 선생님의 별명이기도 했다.

결국 선생님의 설득에 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대 체육과에서 서울대 약대로 진로를 틀었다. 당시 우리 동네에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가 매우 좋아하셨다. 나중에 약사가 되면 약국을 차려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전공이 무용에서 약학으로 급선회하게 된 것이다.

내가 춤을 배우게 된 것은 아버님(유암 김여제)의 배려 덕분이었다.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용교습소에 넣어줬다. 처음엔 발레를 배우다가 고전무용에 푹 빠졌다. 중고등학교 6년 내내 무용반에 들어가 춤을 쳤다.

여고시절엔 잠깐이나마 ‘외도’를 했다. 아버지와 함께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간 것이 계기가 돼 수영에 입문하게 된 것이다. 주 종목은 배영(back stroke)이다. 서울 운동장에서 열린 각종 대회에 출전, 우승해 국가대표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세계 최빈국에 꼽히는 대한민국이 메달 획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고생을 국제대회에 출전시킬 리 만무였다. 수영은 내 인생에서 한낱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나를 적극 뒷바라지하셨던 아버지는 건국훈장(애족장)을 추서받아 대전 현충원에 계시다. 평북 정주 출신인 아버지는 일본 와세다 대학(영문학 전공)을 졸업한 뒤 춘원 이광수와 함께 중국 상하이로 망명,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아버님은 춘원의 주례로 당시 신여성인 윤자혜(경성사범)와 혼례를 치렀다.

어머님은 독립운동을 하느라 툭하면 집을 비운 아버님을 대신해 우리 5남매를 잘 키워내셨다.



김향자 동문은 진도 북춤과 검무 등 다양한 장르의 고전무용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아래 오른쪽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커뮤니티 봉사상.

를 불운서적으로 간주해 폐간처분을 내렸다.

잡지에 실린 아버님의 ‘만만과파식



이대 체육과 지망, 담임선생에 ‘꾸중’ 선친은 독립유공자, 임시정부서 활동 ‘작은 아버지’ 유기천 총장 임종 지켜

이같은 인연으로 나는 춘원의 따님인 이정화 박사와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됐다. 아버님이 춘원을 형이라고 불렀듯 나도 이정화 박사를 언니가 아닌 정화형이라고 부른다.

아버님은 UCLA를 비롯해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독일 베를린 대학 등지에서 유학한 뒤 귀국, 오산학교 교장을 지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 타계하자 교장직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나 수양동우회(흥사단의 조선지부로 많은 지식인들이 참여, 계몽운동을 펼쳤다) 사건에 연루, 체포돼 옥고를 치르는 등 일제의 요시찰 인물이 됐다.

앞서 아버님은 일본 유학시절 조선유학생들의 문예지인 ‘학지광’에 꾸준히 기고, 유명세를 떨쳤다. 일제는 이 잡지

적’은 한국 최초의 근대자유시로 꼽힌다. 몇해 전엔 아버님의 유고가 실린 학지광이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발견돼 한국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아버님은 해방 후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의문사를 당하는 등 정치적 박해를 당하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LA 한인들이 학자금을 대줘 콜럼비아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서재필 박사의 추천으로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 아나운서 겸 편집인이 돼 6.25 때는 UN 참전을 촉구하는 등 미국서 큰 활약을 펼쳤다.

아버님은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를 출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주시경 선생을 도와 1957년 총 6권으로 출간했다. 최근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다시 나의 춤 얘기로 되돌아간다. 남가주의 USC 대학에 유학한 나는 학위를 끝낸 뒤 샌디에고에 정착했다. 개인 약국을 운영하는 한편 해군병원 약사로도 근무했다. 30여년을 샌디에고에 살면서 춤을 통한 재능기부를 했다.

이 무렵 나는 진도 북춤에 매료된 나머지 많은 시간을 이 춤사위를 배우는데 할애했다. 기교가 뛰어나고 세련되면서도 매우 남성적인 춤이다. 진도 어부들이 풍어제를 기원하는데서 유래했다는 진도 북춤은 힘이 넘친다. 두 개의 쌍북가락을 양손에 나누어 들고 나는듯 머무르듯 화려하게 발을 놀린다.

나는 샌디에고 한인사회의 행사마다 초청을 받아 진도 북춤으로 흥을 돋웠다. 2014년에는 시월드에서도 초청 공연을 가졌다. 샌디에고에는 6.25 참전용사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 분들을 초청, 한국의 전통춤을 보여드렸다.

‘코리아 하우스’ 건립 행사 때마다 무료 공연을 해 기금모금에 도움을 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나의 재능기부였다.

나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널리 알려진 탓에 오바마 시절 대통령 봉사상(President’s Award of Voluntary Service)을 받았다. 내겐 과분한 영광이다.

또 하나. (고) 유기천 총장님과의 만남은 지금도 아련한 추억으로 가슴 한 켠에 남아있다. 총장님은 유신직전 신변의 위험을 느껴 1972년 미국에 망명, 줄곧 샌디에고에 사셨다. 나는 총장님의 임종을 지킨 유일한 서울대 제자다. 내게는 총장이나 박사, 교수가 아닌 ‘작은 아버지’라 부르라는 ‘특전’을 주셨다.

나는 지금도 ‘작은 아버지’ 유 총장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린 것이 하느님의 귀한 은총이라고 믿는다. ‘작은 아버지’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으로 죽겠다’며 미국시민이 되기를 거부하셨다.

나는 2년 전 샌디에고를 떠나 LA한인타운 인근에 살고 있다. 춤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어 노인센터에 등록, 무용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우리 춤에는 조상들의 열과 한이 들어있고 멋과 흥이 담겨져 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주민들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어리를 진다고 한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예화다. 나도 남은 여생을 춤이라는 돌덩어리를 지고 살아가려 한다. 춤이 나를 돕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만만한 기부, 여섯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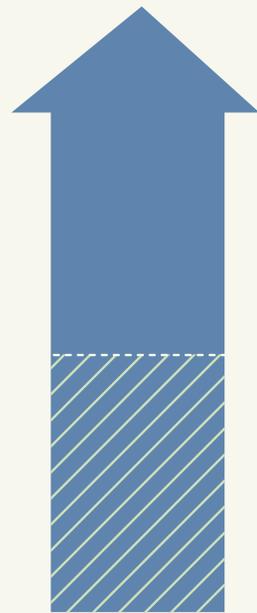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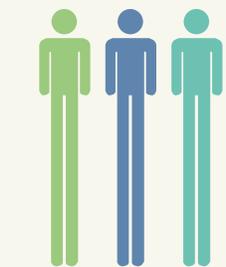
2016년에 시작한 만만한 기부가 여섯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만만한 기부 기부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제공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생활비 지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수

선한 인재 장학금에
지난 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캠페인 전체 참여건 수
❤️ 총 7,913건

6년 차 참여건 수
❤️ 1,932건



모금액

많은 성원에 힘입어
기부 금액이 140억 원이 넘었습니다



6년 차
모금액

33억
73,847,348원

총 141억
28,302,200원

만만한 기부 캠페인 모금액
총 14,128,302,200원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america@snu.ac.kr 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MMH-12]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 정 금 액: _____

Pay to the or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E-mail snuf@snu.ac.kr

‘아뮤제 앙상블’ 한윤미(사대 84) 단장 “우리는 합창을 통해 나눔을 실천합니다”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무대 올려 찬사

한윤미(사대 84) 동문이 단장을 맡고 있는 아뮤제 앙상블(Amusez Ensemble)은 뉴욕 한인커뮤니티에서는 나눔을 실천하는 합창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민자를 위한 기금마련은 물론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자선 음악회를 여는 등 음악을 통해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3년의 긴 공백을 맞았지만 단원들의 봉사열정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모차르트의 대곡 ‘대관식 미사(Coronation Mass)’를 틔는 대로 연습, 12월 18일 무대에 올려 찬사를 받았다. 한 동문과 이메일로 아뮤제 앙상블의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 편집자.



한윤미
사대 84

“그렇지 않아도 서울대에 합격하자 친구들은 내가 음대 성악과에 입학한 줄 알았다고 한다. 내 전공은 영어교육이다. 지난 12월 3일 열린 뉴욕 동창회 모임에서 소프라노 조수미의 히트송 ‘나가거든’을 불러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드라마 ‘명성황후’ 주제곡이다.”

- 단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
“성악 전공자도 있지만 교회나 성당 등지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며 ‘다함께 행복한, 음악이 있는 화요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합창을 통해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나눠주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 그

- 창단 때 얘기를 들려달라.

이민자 단체 · NY 청소년 센터 후원 이세리(음대 86) 동문 뮤직 디렉터 ‘음악이 있는 화요일’ 힐링의 시간



아뮤제 앙상블 공연 장면. 수익금은 뉴욕 청소년센터 후원에 쓰인다.

“2015년 나를 포함해 친구 셋이 모였다. 한 분은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박사, 다른 한 분은 지휘 전공자로 이 분들과 함께라면 좋은 합창단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을 물색했다. 이렇게해서 남성과 여성 단원 10명이 모였다. 첫 창단 연주회를 마치고 난 후 단원에 가입하신 안과의사 한 분이 계셨다. 안대휘 선생은 의사보다 찬양곡 쓰시는 걸 더 좋아할 정도였다. 지난 2019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다. 그 분이 작사 작곡한 ‘천만천사 찬미하고’를 남성 중창으로 공연하기도 했다. 팬데믹이 오기 전 우리 연주회에 오셨다가 ‘은혜’를 받았으며 단원으로 가입한 분들도 몇 분 계시다.”

리고 악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간단한 오디션을 통해 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합창단에 동문들도 있나.
“물론이다. 합창단 반주를 맡고 있는 이세리(음대 86) 박사는 공동 뮤직 디렉터를 맡고 있다. 오프의 이경림(미대), 베이스의 서대원(음대) 동문도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 정기 공연을 갖고 있나.
“연 1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홈 콘서트, 양로원이나 병원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9년 겨울 자선음악회를 마지막으로 3년여의 두렵고도 처절한 코로나를 겪었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삶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때다.”



-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를 무대에 올렸다고 들었다.
“지난 3월부터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대관식 미사를 연습했다. 이 곡은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솔리스트들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절절한 화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영광을 돌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대곡이다. 솔직히 너무 어려워 중간에 이 곡을 계속 연습해야 하나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고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곡은 대관식 미사가 처음이다.”
아뮤제 앙상블은 12월 18일 뉴욕의 Haknesiah 장로교회에서 대관식 미사 공연을 가졌다.
- 수익금은 어디에 쓰나.
“순수익은 뉴욕 한인청소년센터에 기부한다. 이 음악회를 통해 많은 뉴욕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입단문의: (917) 533-0709(한윤미)
▲이메일: amusezensemble@gmail.com

- ‘아뮤제’란 단어가 생소하게 들린다. 무슨 뜻인가.
“프랑스말로 ‘Amusez vous bien’은 ‘have fun’이란 뜻이다. Ensemble은 작은 합창단이라는 의미다. ‘아뮤제 앙상블’은 함께 즐기는 작은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찬양과 함께 이웃에게 기쁨과 힐링을 나누고자 창단된 단체다.”
- 언제 창단됐나.
“원래는 ‘칸타빌레 합창단(Cantabile NY Chamber Choir)’으로 출발했다. 2015년 창단됐으니 올해 7년된 합창단이다. 2018년 국세청(IRS)으로부터 비영리재단의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아뮤제’로 개명했다.”
- 음악전공자도 아닌데 왜 합창단을 만들게 됐나.
“내가 좋아하는 합창, 특히 ‘찬양곡’을 계속 부르고 싶어서였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동요와 한국가곡 등의 노래를 많이 가르쳐주셔서 대광초등학교 4학년 때 합창단 단원이 됐다. CBS 노래자랑 본선에도 진출, 방송국 출연도 했다. 합창단과 함께 유니버설 레코드에서 어린이 찬양곡도 2차례나 냈다. 내 어린 시절은 음악과 함께 한 삶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만큼 노래에 푹 빠져 지냈다.”
- 음대진학을 하지 그랬나.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시시오.



“나눔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재능기부 위해 고소득 포기, 62세 조기은퇴 결심 오페라 가수에 레슨받아 ... 가라오케 등 장비 구입



박평일
농생대 69

3년 전 한국전 참전용사들과의 만남은 지금까지도 내 가슴 한 칸에 감동으로 남아있다.

버지니아의 우리 집에서 50마일 가량 떨어진 윈체스터 시티 파크에는 한국전 참전 전사자들을 위한 위령탑이 세워져 있다.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를 지키려다 아깝게 숨진 이곳 출신 미군병사 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내 자신 위령탑 건립을 위해 적은 금액이나마 도네이션을 했다. 윈체스터 카운티에는 거의 100명에 이르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생존해 있다.

나는 공원 클럽하우스에서 참전용사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요즘말로 재능기부라고 할까. 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다. ‘God Bless America’를 두 차례나 불렀다. 벅찬 감동으로 내 자신 가슴이 멍멍해짐을 느꼈다. 참전용사들의 눈가도 축축히 젖어있었다. 아직도 포성이 귓전을 울리는 듯 눈을 지긋이 감은 채 따라 부르는 노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날 공연이 끝난뒤 장비를 챙기며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평일아! 역시 은퇴하기를 정말 잘했어. 은퇴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같은 봉사의 기쁨을 어찌 만끽할 수 있겠는가” 하며 내 자신을 한껏 북돋아줬다.

네팔 커뮤니티를 위한 공연도 잊지 못

할 추억 중 하나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를 부르며 이민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줬다. 지금도 그 공연을 생각하면 나눔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나는 꼭 10년 전 ‘early retirement’를 선언했다. 62세 되던 해다. 주변에서는 극구 말렸지만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내 CPA는 ‘고수임이 보장되는데...’ 못내 아쉬워했다. 당시 나는 연 15만 달러는 거뜬히 벌며 풍족한 삶을 살

신감도 생겼다.

60세가 가까워지자 내게 이같은 기회를 준 미국사회가 진심으로 고맙게 느껴졌다. 내 꿈을 키워준 미국, 자유의 요람인 이 나라... 죽기 전에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었고 또 뭔가를 남기고 싶었다.

본래 특별한 재능이 없는 평범한 인물이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였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세계 공

‘The Friend’ 엔터테인먼트 설립 한국전 참전용사 공연 ‘가슴뭉클’ ‘러브 미 텐더’ 등 올드 팝송 불러



윈체스터 카운티 공원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위문 공연. ‘God Bless America’ 등을 부르며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

았다. 조기은퇴하면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베니핏도 많이 줄어들어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내 캐럴만이 나를 응원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내가 미국에 온 것은 1977년이다. 뉴욕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서였다. 돌이켜보면 돈 한 푼없이 꿈과 열정만으로 사업가의 길을 걸었다. 많은 고난이 따랐지만 도전을 하다 보니 돈을 벌게 됐고 미국생활에 자

용어’인 음악이었다. 예전 미국인들 파티에서 몇차례 흘러간 팝송을 불러 반응이 무척 좋았던 것이 생각났다. 나는 어려서부터 유달리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마침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오페라 가수로 활동했던 분을 만나 개인지도를 받기로 했다. 시간당 80달러를 주고 6개월동안 레슨을 받았다. 그 분은 비록 장르를 다르지만 나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해줬다. 자



필자가 설립한 ‘The Friend’ 엔터테인먼트 회사.

신이 생겼다. 전국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 현역 가수들로부터 무대 매너를 배우기도 했다.

집에 가라오케를 설치하고 한국서 구입한 ELP에 맞춰 미친듯이 노래연습에 몰두했다.

준비가 거의 끝나 양로원 순회공연을 떠나려했지만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가라오케와 ELP에 수록돼 있는 미국 팝송들의 지적소유권 문제였다.

집에서 가라오케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상업적이거나 공개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면 지적소유권을 침해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할 수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가라오케를 새로 구입했다. 그러나 내가 부르고 싶은 옛 팝송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수록돼 있었다.

가라오케용으로 나온 CD를 사들였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CD를 한 장 한 장 업로드하는 것도 불편했다. “에라, 모르겠다.. 양로원에서 무료 봉사활동을 하는데 누가 소송을 걸겠어” 배짱이 생겼다. 그러던 차에 팬데믹을 맞게 된 것이다.

이제는 팬데믹도 세력이 크게 약화돼 양로원을 찾아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를 생각이다. 내년에는 동문들이 살고 있는 양로원들을 방문하며 노래 봉사를 할 계획이다. 나를 원하는 곳에 관계없이 찾아가 위로와 우정을 나누고 싶다.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 18대 회장 후보추천 공고

(2025.7.1. ~ 2027.6.30)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 중 미주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제18대 미주 동창회장 · 2025.7.1.~ 2027.6.30)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훌륭한 후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 회장, 차기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이선위원	위원장 신응남 646-523-9606	노명호 회장 626-991-4457	이상강 차기회장 918-616-3386
	정정욱 뉴잉글랜드 401-556-5501	최경선 북가주 408-621-8080	박상근 D.C. 703-447-8175
			황치용 시카고 224-334-1224

제 18대 회장
(2025.7.1 ~ 2027.6.30)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선거일정

근거규정

- 2022년 12월 31일 차차기 회장 추천서 접수 마감
- 인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회보 등을 통해 출마 공약을 발표.
- 2023년 6월 제 32차 전국 평의원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선출.
- 근거규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위원회 규정
-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김서영(문리대 68) 동문 타계 1주기 유족이 모교에 ‘고고학 학술기금’으로 15억원 쾌척 여학생 모임 ‘마로니에회’ 참석위해 매년 한국 방문

지난해 11월 3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김서영(문리대 68) 동문의 1주기를 맞아 유족이 모교에 ‘김서영 고고학 학술기금’ 15억원을 쾌척했다. 부군인 김한선 ‘미션헬스서비스’ 대표는 지난 12월 2일 관악캠퍼스를 방문해 오세정 총장을 비롯한 주요 교내 인사들을 만나 기금을 전달했다. 오 총장은 “소중한 기금을 출연해 주신 가족분들의 뜻에 따라 서울

대가 한국 고고학 연구의 발전과 국제적인 연구자를 양성하는데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인은 문리대 동기여학생들의 모임인 ‘마로니에회’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거의 매년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동문회와 서울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동창회보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김한선 대표를 만나 취재했다. - 편집자.

- 한국 돈 15억 원이면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어떻게 서울대 고고학에 기부할 생각을 했는지요?
“아내가 기뻐했을 겁니다. 고고학에 대해 애정이 깊었거든요. 원래 물리학도였지만 은퇴 후 우리 역사와 뿌리를 찾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고고학 연구를 위해 직접 산스크리트어까지 공부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김서영 동문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과 독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앨라배마 탈러디가 칼리지에서 물리학 교수로 일하다 은퇴했다. 조지아주 동창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 한국에서 고고학 같은 기초 학문 분야에 흔치 않은 기부였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학교서 많이 놀라더군요. 고고학과 단일 기부로는 역대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기부금은 ‘김서영 고고학 학술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심포지엄 개최, 장학금 지급 등 한국 고고학 연구 저변을 넓히는 데 사용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용처를 부탁했습니다.”

- 부인 김서영 박사는 어떤 분이었나요?
“공부에 욕심이 많았고 매사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제게는 대화가 통하는 친구 같은 아내였고요. 어떤 분야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물질적 세속적인 것보다는 의미와 가치, 보람을 더 중요시했다는 점에서도 뜻이 맞았습니다. 평생 아침을 해 주었고 밥 먹을 때는 꼭 내 옆에 앉아 있어 줬어요. 찌개도 참 잘 끓였는데 ... 너무 빨리 갔어요.”

- 많이 생각나시겠습니까.
“제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의과대학 다닐 때 처음 만났습니다. 50년 전이었네요. 주삿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여자가 한국서 왔다고들 소문이 났는데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다. 처음에는 저도 별 관심을 안 가졌지만 한국 학생이 적다 보니 가끔 모이곤 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당시 제가 고물차를 몰고 있었는데 한 번씩 라이드를 해주면서 친해졌어요. 몇 년 뒤 아내는 선을 보기 위해 가끔 한국에 나갔는데 그때마다 공항 라이드와 픽업도 해 줬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을 봐도 결혼이 이뤄지지 않아 제가 조언도 해주고 하다가 우리 둘이 가까워지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하고 저를 전폭적으로 이해해 주는 아내가 저도 싫지 않았 습니다.”
김 박사는 텍사스에서 의대 졸업 후 아내와 함께 독일로 유학을 가서 박사 공부를 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왔다. 이후

동문사랑 남달라, 동창회에도 적극적 물리학 교수 은퇴뒤 고고학에 관심 뒤 연구위해 인도 산스크리트어까지 공부



김한선-김서영 박사 부부의 다정했던 한 때.



김한선 박사가 생활형 요양시설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로렌스빌에 있는 미션헬스서비스 통합 건물. 오른쪽 앞이 호스피스 병동, 뒤에 보이는 2층 건물이 재활센터다. 미션은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뜻이다.

김 박사는 앨라배마에서 나사(NASA) 연구원으로 5년 가까이 일하다 안과 병원을 개업했고, 부인 김서영 박사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쳤다.

- 안과 의사 시절은 어땠나요?
“의대 졸업은 했지만 바로 의사 가운을 입지는 않았습다. 아내와 함께 독일에서 5년을 더 공부했거든요.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는 나사에서 우주의학 분야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중력과 진동의 변화 따른 몸의 변화, 산소 결핍 시의 신체 반응 같은 연구를 했는데 무척 재미있었어요. 아내도 제

가 그런 일을 하는 걸 아주 좋아했고요. 당시 제 연봉이 약 6만5천 달러였습다.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애도 키우고 한국도 자주 가고 하다 보니 늘 빠듯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했어요. 그때 마침 친구와 뜻이 맞아 동업으로 안과 병원

을 개업했습니다.

- 이곳에 와서 보니 호스피스 병원뿐 아니라 초현대식 너싱홈 재활센터까지 규모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셨나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잡고 보니 어느새 소명처럼 된 것이지요. 제가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앨라배마에 살면서도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대회에 자주 참가했습니다.
2005년 무렵인가 그때도 대회 참가 차 애틀랜타에 왔다가 지인의 소개로 우연

히 말기암 환자 2명을 돕게 되면서 한인 시니어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자선이었는데 돕는 인원이 늘고 비용 부담도 커지면 서 아예 호스피스 병원을 하나 세우면 더 많은 한인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 많이 사는 조지아 귀넷카운티에 미션호스피스 병원을 시작한 겁니다.”

미션호스피스의 미션(Mesun)은 한자로 아름다울 미(美), 선택할 선(選)자로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뜻이다. 영어 스펠링으로는 나와 태양, 독일어로는 에너지를 뜻한다. 인생의 바람직한 마무리를 돕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 한다.
김 박사는 앨라배마에서 제법 돈을 잘 버는 것으로 소문났을 때도 1600스퀘어 피트 남짓한 자그마한 집에서 살았다. 차도 오래된 픽업트럭을 몰았다고 한다. 그만큼 검소했다는 말인데, 미국 친구들이 그래서 더 자신을 신뢰했던 것 같다고 했다. 김박사는 지금도 앨라배마의 그 집을 오가며 지낸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 부인을 먼저 보내고 1년이 지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요.
“시간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게 간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좀 더 자주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미국에 왔을 때, 또 의사가 되었을 때 나는 무슨 꿈을 꾸었던가를 생각하고 또 얼마나 그 꿈을 이루었는지도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오래전 꾸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또 다른 꿈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그 꿈을 위해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김 박사가 말하는 새 꿈은 북한에 종합 의료센터를 짓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꾸기 시작했다는 꿈이다.

김 박사는 당시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안과 의료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 교실에 1억 원을 기증한 바 있다. 1942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개업한 장인 김승곤 씨의 이름으로였다.
김한선 박사는 김서영 동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었다. 아들은 하버드 대학 졸업 후 동부의 한 의과대학 교수로 있다.
이종호(인문대 81 · 애틀랜타 중앙일보 대표)

김성열(치대 61) 동문의 남다른 기부철학

“큰 거를 친구에 주거라” 어머니 말씀이 평생의 ‘좌우명’ 모교 치과학술연구기금으로 100만 달러 일시불 기부

김성열(치대 61) 동문이 모교 치의학 대학원에 ‘김성열 치과학술연구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일시불로 기부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30년째 치과진료를 해오고 있는 김 동문은 미주 동창회의 창업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대 동문

의 벤처회사에도 상당액을 투자, 미주시장 진출에 도움을 준 바 있다. 현지에서는 ‘노래하는 치과의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김 동문의 삶과 기부동기, 그리고 발명특허에 대한 그의 열정을 들어봤다. - 편집자.

기부 동기 ‘세금 되갚으려고’

제가 치과대학 다닐 때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사무직원이 숫자가 가득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뭐냐고 물었더니 내년 예산이라고 하며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치과대학생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는데 내가 내는 등록금으로는 어렵도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거지요.” 그래서 그 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갚아야겠다. 이제 때가 되어 갚는 것입니다.

“큰 거를 주어야라”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서너살 때 일입니다. 외할아버지가 가끔씩 저희 집에 오실 때면 깨엿가락을 사가지고 오셔서 한가락씩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깨엿을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가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먹으면서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깨엿을 들고 나갔는데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똑 잘랐는데, 똑 같이 자르려 했지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친구에게 주는데 마침 우리 어머니가 옆을 지나가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큰 거를 친구에 주어야지.” 망설였습니다. 큰거를 내가 먹어야 할텐데 하고. 그래도 어머니 말씀이니 들어야지. 큰 거를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항상 큰 거를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세명 네명일 때는 토막토막 잘라서 큰것들 친구들을 주고 제일 작은 것을 내가 먹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걸로 여기며 나누며 살게 됐습니다.

대학시절 빈민촌 진료

치과대학 다닐 때 매 주말 토요일에 서울 근교의 빈민촌을 다니며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기 말시험 때나 한결같이 판자촌 천막촌 빈민촌에 진료를 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밥먹듯이, 학교에 가듯이, 등산가서 산에 오르듯이, 으레 할일로 했습니다. 예상치 않았었는데 이 무료 진료를 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나중에 저에게는 연고가 없는 미국에서 개인 치과를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고 또 성공적으로 병원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발명특허 20여개 ... 모두 상품화 1주 3일은 진료, 4일은 연구 몰두 서울대 졸업장은 나눠야할 ‘축복’



오세정(왼쪽)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김성열 동문 부부.



김 동문은 요리에도 일가견이 있다.



마을 댄스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부부.

기부의 생활화

미국으로 이주해서도 남에게 베푸는 생활을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오레건주 포틀랜드 지역에 한인 안식교회가 창립되었는데 성가대 가운이 없다고 해서 20벌을 기부했습니다.

뱅크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일년에 한번씩 스폰서했고 클라크 칼리지에 장학금, 메디칼 센터 대합실에 그랜드 피아노를, 암센터에 탈의실을 등등 지역사회 발전과 필요한 곳을 찾아 지원했습니다.

꼭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돈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먹고 사는데 드는 돈은 거의 같습니다.

돈은 써야 그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치과의사로서 매일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한된 작은 공간인 입안에서 치아를 치료해야한다는 어려움을 느끼면서, 새로운 치과기구를 연구 발명해서 치과의사들은 좀 더 향상된 새로운 기구로 환자들을 편안하게 치료해주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삼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구를 10개 이상 발명해 실험을 통해 20개 이상의 특허를 받아 상품화해서 지금은 전세계 92개국에 공급돼 치과의사들의 진료에 큰 도움을 주고, 환자들은 치료에 편안함을 누리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공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특허를 낸 치과기구들의 기업상품화로 들어온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 치과기구 연구발명에 전념하면서 일주일에 3일은 환자진료, 4일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출신 아내의 축복

제가 고3때 서강대학이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서강대학 나오면 외국유학 쉽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동기중에 공부잘하는 우등생들이 서강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강에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서 서강대가 공부를 잘시키고 특히 영어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는 것을 알았는데 저는 그 서강대학의 좋은 교육을 받은 졸업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아내를 통해 저는 서강대학의 좋은 교육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행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미국 서북부 태평양 워싱턴주로 이주한 후 아내의 유창한 영어로 미국생활에 빨리 적응하며 주류사회 진입에 큰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번은 서강대학교 교수인 정일우 신부님이 쓰신 ‘네 이웃을 하나님 같이 대하라’는 글을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부터 제 아내가 하나님이며, 내 아들딸 내 친구들 내 직원들이 하나님이며 내 환자들, 집 정원사, 도우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하나님처럼 대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그의 치과에서 환자들에게 설문(survey)조사를 했는데 오랫동안 그의 환자였던 사람들이 그를 Honorable Man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200명 중 3명이 합격한 치과면허

1976년 미국에 이주해서 워싱턴주 치과면허시험을 보는데 10일동안 시험을 봤습니다. 기초과목 필기시험 이틀, 전문과목 필기시험 이틀, 실기시험 임상시험 모두 10일에 걸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당시 워싱턴주 치과면허 시험에 응시한 외국인들이 200명이 넘었는데 3명이 합격했고 그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니 성적이 우수해 필기시험 해부학은 98점이었습니다. 모교 서울대 치대에서 받은 교육이 미국학생들에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11면에 계속)

서울대는 나눠야 할 축복

서울대 치과대학은 저의 인생에 축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 장 종이도 맞들면 낫다는 신념으로 아내와 함께 둘이서 열심히 의논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서 난관(misfortune)을 기회(opportunity)로 바꾸어 놓은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가지를 놓고 남자가 보는 시각과 여자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서 저는 아내의 의견을 물어 보고 해결점을 찾을 때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아내도 내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리고 저희 부부가 아주 열심히 살아 왔구나, 행운을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행운을 만들면서 살아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제 깨달아
고교 동기생들은 ‘기부 큰손’ 흐뭇
아내와의 만남은 내 인생의 ‘행운’**

그리고 이 행운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이웃과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육 받고 자라온 내 서울대학교에 그리고 내가 내 가족을 이루고 살아온 내 지역사회에도 같이 나누어야 보람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실천을 위해 뜻을 세우라고 재학생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멘토 교수님의 인도

제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군의관으로 갔다가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제대했을 때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치과대학이 설립되면서 김귀선 교수님이 초대 학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귀선 교수님은 제가 서울대 치과대학에서 기독교학생회 회장으로 일할 때 지도교수였으며 저의 멘토 교수님이었습니다.

제대하면서 김귀선 학장님께 인사하러 찾아갔더니, “자네 여기와서 가르치지 않겠나” 하셔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는 일주일에 4시간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 만나지는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얼른 가서 보였더니, “금호동에 있는 기독교병원에서 치과를 창설하고 치과과장을 찾는데 가보지 않겠나” 그래서 “네, 가 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치과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초에 세배하러 학장님 댁을 찾았을 때 사모님인 김정환 이사님 말씀이 좋은 구수를 하나 발견했는데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네, 소개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서울에서 국제여성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회를 보던 미스 전이 닥터 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미스 전에 대한 내 첫 인상은 키가 크고 서양화된 여자같은 인상이

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좋은 옷을 입히면 보기 좋을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이야기 한 것에 의하면 아내의 나에 대한 첫 인상은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교회 온순한 목사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나는 여섯 형제중에 둘째 아들이고 미스 전은 여섯딸중에 둘째딸이고, 3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우리는 둘 다 집안 살림을 맡은 가장이었고, 신앙이 같고, 생각이 많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계속 되면서 친숙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후 우리는 거의 매일 퇴근후에 만나서 같이 저녁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상도 동 까지 바래다 주고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 신교동(지금은 청운동에 합침)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울시내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택시 타며, 뛰며 집에

돌아 왔습니다. 1월에 만나서 4월에 약혼하고 6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때가 병원에서 치과 과장으로 일하면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강의 나갈 때였습니다.

“지는게 이기는 거다”

역시 제가 어렸을때 이야기입니다. 국민학교 1,2학년때 딱지치기를 많이 했는데 나이여하를 막론하고 많이 이겼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3,4학년 큰애들이 많았는데 모두들 나한테 잃었습니다.

소문을 듣고는 이웃 동네 애들이 나한테 딱지치기 도전 하러왔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다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역섯명 되는 삼사학년 애들이 나를 빙 둘러 싸고는 자기들이 잃은 딱지를 다 뺏어갔습니다.

나는 분해서 울면서 집에 돌아와 집 앞 층계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보고 웬일이냐고 묻고 아버지가 나와서 웬일이냐고 묻고는 하시는 말씀이 “잊어버려라. 지는게 이기는 거다.” 이제는 아버지한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지는게 이기는 거야” 가서 그놈들을 붙잡아서 때려주고 내가 딱 딱 지를다 뺏어 오지 않고. “자, 들어가 저녁먹자.” 저는 평생을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싸움 한번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하는 삶이 이기는 거다.

고등학교 동기들의 기부

서울대 동창회보를 통해서 알게된 우연한 일이지만, 서울대에 기부를 많이한 김성열, 이강홍, 주중광, 한홍택 (가나다순) 이 경북고를 1960년에 졸업한 동기 동창들입니다.

제 삶의 일부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미주 동창회에 감사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음장학생들의 미국 방문기
“용기를 얻었다” 선배들에 감사**

모교 이음장학생들의 미국방문 감동이 식지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발전기금이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는 미국을 처음 방문한 이음장학생 4명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들은 미국방문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음장학생은 학생들에게 해외견문의 기회를 제공해 국제적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음장

학생 15명은 지난 6월말 남가주를 방문해 동문가정에 숙박하는 등 3주간을 미국에 머무르며 미국을 체험했다.

이들은 “선배님들의 후원 덕분에 좋은 경험과 용기를 얻었다”며 “저희들이 1기인데 계속 이음장학금이 이어져서 여러 학생들의 꿈이 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 편집자.



“나에게 꿈이 생겼다”

임유빈
서양학과

뉴욕에 있는 미술관(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서 모네의 그림을 보며 “(내가) 이 미술계에 들어가기 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의 경험이 내게 큰 용기가 됐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는 (미국방문을 통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공간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해줬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멘토를 만났다”

김성경
서어서문학과

선배님들께서 게티 박물관을 꼭 가보라고 하셨다. 장 폴 게티라는 기업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한 박물관이다.

이런 나눔의 방식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겪는 후배들에게 멘토같은 선배가 돼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되게 넓구나” 체감

윤지인
인문계열

미국에 다녀오기 전에는 목표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 다녀오고나서는 세상이 되게 넓고, 내가 모르는게 되게 많고, 새로운 길을 찾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목표에 대한 압박감에서 해방이 됐다.

‘내가 외국어를 배우면 나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람과도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겠구나’ 이 당연한 걸 체감했다. 앞으로 국제협력이나 교류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돌아보게 됐다”

이동건
의예과

서울대학교 선배님들을 만났다는 게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선배님들 중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있고 우리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내가 서울대 학생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런거구나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다.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라고 말씀하신 선배님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은퇴마을’ 라구나 우즈(Laguna Woods) 탐방기 한 울타리 안에 동문 110여 명이 모여 살아 대가족 분위기 최고령 50학번, 최연소 69학번... 의대 출신이 가장 많아



“미국 어딜가도 우리 같은 동문회는 없을 겁니다. 동문들이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대가족이라고 할까요.”

대가족의 대표는 승정인(공대 69·사진) 동문. 라구나 우즈(Laguna Woods) 서울대 동문회 회장이다.

라구나 우즈는 LA에서 남쪽으로 50여 마일 가량 떨어진 은퇴마을이다. 입주자 격은 55+. 이곳에 서울대 동문회가 발족된 것은 지난 2009년. 조순승(문리대 49) 동문이 초대회장으로 추대돼 두 차례 연임을 했다.

12월 현재 회원으로 공식 등록된 동문은 110여명. 승 회장에 따르면 최근 이사해 와 아직 회원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문들을 포함하면 120명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승 회장은 라구나 우즈에 동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날씨를 꼽는다. 겨울이 없고 여름엔 건조해 시니어들에게 최적화된 곳이라는 설명이다.

“도심에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은 풍광이 좋아 마치 매일을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산자락을 끼고 있으면서도 바다가 지척이다. 자동차로 불과 10분쯤 거리에 라구나 비치, 뉴포트 비치, 코로나 델마 등 태평양이 한 눈에 펼쳐진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풍광 좋아 27홀짜리 골프장과 수영장이 5개

레저시설 또한 라구나 우즈에 시니어들이 몰리는 이유다. 골프장도 27홀 짜리와 9홀 짜리 등 두 개나 된다. 많은 동문들이 골프 카트 한대씩은 갖고 있다. 카트가 단지내 교통수단으로 사용될 정도다. 수영장도 5개나 된다. 이외에도 테니스, 볼링, 탁구 등 스포츠 시설이 곳곳에 있어 연중무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지난해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송년모임. 110여명의 동문들이 한 울타리안에 모여 살아 마치 대가족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뭐니뭐니해도 시니어들에게엔 세이프티가 최우선 관심사다. 마을 여러 곳에 게이트가 설치돼 있어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경비원들이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어 문열고 살아도 될 만큼 안전이 확보돼 있다.

단과대 별로는 의대 출신이 3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대 21명, 문리대와 사대가 각각 13명, 약대 7명, 법대와 음대가

각각 6명, 미대 5명, 치대와 상대 각각 3명, 농대 3명, 간호대 1명 등이다.

동문들의 학번 분포도를 보면 1959년 입학 동문이 17명으로 가장 많다. 58학번과 60학번은 각각 11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최고령은 50학번의 고석원 동문. 최연소는 승정인 회장의 동기생들인 69학번으로 3명이 회원명단에 올라 있다.



라구나 우즈는 은퇴마을이지만 20년 전 시로 승격돼 어엿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시장과 시의원 5명을 투표로 뽑는다. 인구는 거의 모두 시니어들이다. 지난 2020년 센서스에 따르면 1만8,000명에 이른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70%로 압도적이다. 이어 한인을 포함한 동양계가 23%를 차지한다.

동문들은 1년에 3~4차례 정기적으로

만나 여흥을 즐기거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모임이 중단됐다.

“동문들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 아닙니까. 만날 수가 없어 모두들 아쉬워했지요.”

승 회장은 그래도 전화와 줌 화상 모임을 갖는 등 비대면 접촉을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 승 회장은 “팬데믹 피해를 입은 동문들이 없어 다행이었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라구나 우즈 입주민들은 중산층에 속한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집을 용자 없이 일시불로 구입해야 한다. 관리비(HOA)는 콘도 기준으로 한달 800달러 가량. 소득도 연 4만 달러가 넘어야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등 까다롭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HOA가 그리 비싼 편은 아닙니다. 아주싼 값에 매일 골프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승 회장은 라구나 우즈에 들어와서 골프 실력이 늘었다고 자랑했다.

라구나 우즈 동문들은 12월 17일(토) 1년 만에 처음으로 송년모임을 대면행사로 치렀다. “동문 가족이 모두 모이는 축제나 다름없어요. 요즘 모임 준비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빠요.” 승 회장은 몸은 힘들어도 동문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엔돌핀이 펄펄 솟아나는 기분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취재=홍선례(음대 70)





제1회 '관악 인비테이셔널' 골프 토너먼트 제주도에서 온 동문도... '장대비 내려도 출전' 열의

제 1회 남가주 '관악 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가 지난 12월 4일(일) 팔로스 버디스의 로스 버디스 골프코스에서 열렸다. 로스 버디스는 태평양이 한 눈에 펼쳐져 LA에서는 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회는 모두 8개 팀 60명이 참가, 오전 9시 1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티오프해 차질없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관악 캠퍼스에서 수학한 동문들로 7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동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특별 게스트로 60년대 학번들도 참가해 관악 동문들을 격려했다.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회장을 비롯해 성주경(상대 68), 임춘택(상대 68), 서치원(공대 69), 김경무(공대 69) 동문 등도 팀을 꾸려 후배들과 어울렸다.

한국서 김종섭(문리대 66) 총동창회장도 참가, 대회를 빛내줬다. 이날 토너먼트를 간추려 소개한다.

0... 개인부문 남자부 우승은 장예진(사대 94학번) 동문, 여자부 우승은 전영록(치대 81)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단체 부문 우승은 노순철·박경륜·이상호 동문 등이 출전한 80학번팀에 돌아갔다. 2등은 60년대 학번팀(서치원, 성주경, 김종섭), 3등은 78-79학번팀(김한석·송태진·최운화)이 차지했다. 이외에도 무려 10명이 출전해 '인해전술'을 펼친 80학번팀이 최대참가자상을 받았다.

이날 싱글을 친 동문들은 장예진(5), 서치원(7), 노순철(8, 사대 80), 박경륜(9, 공대 80), 이상호(9, 사대 80), 고민석(9, 농대 88), 정태유(9, 사대 92) 등 모두 7명이다.

이동휘(사대 82) 동문이 대회 유일의 언더파(-4)를 기록했으나 티칭프로(?)로 간주돼 시상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박경륜 동문은 이글샷을 날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0... 이번 대회 최대 관심사는 대회가 과연 예정대로 열릴 수 있느냐에 모아졌다. 대회 개막 이틀 전부터 비올 확률이 40~50%로 예보됐기 때문. 대회를 실무 총괄한 김희경(사대 80) 남가주 총동창회 총무는 거의 2시간 간격으로 일기에 보를 체크했다고 털어놨다. 이 정도로 맑고생이 컸다는 것이다.

심지어 단체특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자부 우승 장예진(사대 94)

여자부 우승 전영록(치대 81)

최대 참가자상 80학번팀

써 동문들을 울컥하게 했다. “저는 하느님 뺨이 없는데 뺨 있으신 분은 비 안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향간에는 하느님이 너무 바쁘셔서 골프대회 날짜까지는 안들어주신다고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던데...” 글을 읽은 한 동문은 얼마나 가슴조렸으면 이런 ‘농담반, 진담반’ 얘기를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

번마다 옷색깔을 달리해 입도록 한 것. 예를 들어 80학번은 빨강색 상의에 검정색 하의, 85학번은 검정색 상의에 베이지색 하의를 입고 참가했다. 889(88~89) 학번팀은 하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 789(78~79) 학번은 파랑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고 나왔다.

0... 대회가 끝난 뒤에는 토런스의 백정

끈대소리 듣기 심상”이라며 눈총을 줬다.

0... 참가자 중에는 제주도에서 온 동문도 있었다. 주인공은 김성수(사회과학대 80) 동문. 원래 LA출신으로 위트가 넘쳐 동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관악골프대회 개최소식을 듣고는 주저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왔으며 반드시 우승해 비행기값을 벌어야겠다고 의사를 떨어 좌중을 웃겼다. 김 동문은 그러나 아직 시차적응이 안된 탓인지 퍼팅이 난조를 보여 우승권에서 멀리 비껴났다.

0...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전영록 동문은 상금으로 맥도널드 커피를 돌려 ‘통큰’ 동문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전 동문은 서울대 재학시절 자신의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도 들려줬다. 80년대 꾸준히 인기를 모으며 통련했던 가수 전영록과 이름이 같아 ‘남자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는 것. 당시 방송 DJ일을 했던 전영록에 편지를 보냈는데 자신의 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줘 지금도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석호태(공대 85) 동문도 이름에 얽힌 비화를 털어놔 흥미를 유발했다. 한국을 방문할때 호텔에 투숙하면 ‘석호필’로 잘못 알고는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석호필은 폭스TV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는 웹트위스 밀러의 한국 애칭이다. 캐나다 출신의 독립유공자 스코필드 박사의 한국 이름이기도 하다.

0... 노명호(공대 61) 회장과 조용국(사대 94) 동문의 ‘만남’도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두 동문은 최원로와 최연소 타이틀 홀더. 무려 33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었지만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노 회장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 ‘컨템퍼러리(contemporary)’ 예요. 동시대 인물이라고 할까요.” 이날 노 회장은 16개를 쳐 골프에 관한 한 조 동문을 압도(?)했다.

남가주 동창회 부총무를 맡고 있는 조 동문은 이른바 ‘unsung hero’로 알려져 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동창회의 굵은 일을 조용히 도맡아 해낸다고 해서다.

0... 동문 부인들도 게스트로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김선희(Mrs. 하선호, 치대 81)씨는 17개를 쳐 여성들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냈으나 동문이 아니어서 아깝게 수상을 못했다.



이날 80학번 팀은 모두 10명이 출전, 최대 참가자상을 받았다.



81학번 팀은 개인전 여자부 우승 선수(전영록, 오른쪽에서 3번째)를 배출했다.

다고 김 동문을 응원했다.

어느 동문은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2대1로 누르고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에 한껏 고무된 나머지 “장대비가 내려도 대회는 열려야 한다”고 전의를 불태워 박수를 받았다.

김 총무의 기도가 통했는지 대회 당일 가랑비가 약간 내렸을 뿐 골프치기에는 최적의 날씨였다.

0... 제 1회 대회이니 만큼 전통을 세우려는 주최측의 의지가 무척 강했다. 학

강호동 레스토랑에서 디너겸 뒷풀이 행사를 열었다.

역시 ‘관악 캠퍼스’ 동문들은 60년대 학번들과는 사뭇 달랐다. 동기이면 단과대 구분없이 서로 ‘반말’을 했다. ‘~씨’ 대신 ‘~아’로 통한 것. 한 80년대 여자 동문은 남자동기생에게 “너, 오랜만이다. 한국 갔다 왔으며?”하며 친근감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60년대 선배가 “아무리 동기라도 그렇지 어떻게 반말을...”하며 놀라워하자 “세대차이를 느낀다. 그런말 하면

남가주 공대 송년모임 신임 회장에 배재현(전기과 75), 세대교체 '대한민국 월드컵 16강 축하' 분위기 달궜

공대 동창회가 젊어졌다. 지난 12월 3일 LA의 '작가의 집'에서 열린 송년모임에서 배재현(전기과 75) 동문이 새 회장으로 선출돼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남가주 공대 동창회는 그동안 50~60년대 학번이 주축이 돼 모임을 이끌어왔었다.

배 동문이 만장일치로 새 회장에 선출된 것은 '젊은 사람이 회장을 해야 젊은 후배들이 모인다'는 중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모임에는 150여 동문들과 배우자, 초청 게스트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배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반세기를 이어온 남가주 공대 회장을 맡게돼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선배 회장님들, 특히 카톡방 개설과 공대 반세기 책자 발간 등 많은 일을 하신 남종우 회장님 뒤를 잇는 것이라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새해에는 대면 행사도 많이 마련해 회원들간의 친목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송년모임은 정기총회에 앞서 위종민(자원 64) 동문의 사회로 '남가주 서울 공대 반세기'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이어 배재현 동문의 사회로 열린 총회

에서 남종우 회장은 "무사히 임기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남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대한민국의 월드컵 16강을 축하한다'고 큰 소리로 외쳐 분위기를 달궜다.



남가주 공대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3일 LA의 작가의 집에서 150여 동문 및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은 공대 반세기 기념 책자 발간 기념을 겸해 열려 더욱 뜻깊은 모임이 됐다.

배재현(전기과 75, 왼쪽) 신임회장과 남종우(전기과 62) 전임 회장.

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새 회장의 리더십으로 동창회가 재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노명호(토목 61) 미주 동창회장은 "남자가 80이 넘으면 대체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건강이 개선되고 장수한다는 보고서도 나와있다"고 소개하며 "동창회가 바로 동문들의 건강지킴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총회에서는 박찬근(금속 59), 김춘자(전자 59), 이동희(전자 68), 김순자(Mrs. 정종현·조항 60) 등 올해 세상을 떠난 동문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박제환(문리대 74), 김상찬(문리대 65) 동문 등 전현직 남가주 총동창회장들을 비롯해 이호진(간호대 74) 동문 등 미주 동창회 임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미주 동창회에서 창업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한홍택(기계 60) UCLA 석좌교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지 1년도 안 됐는데 나과 벨리에 현지법인이 세워지고 투자가 성사되는 등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열리는 줌 화상회의에 많은 공대 동문들이 참여하는 등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예반 · 영화감상반 · 친목모임 합동송년회 색소폰, 기타 연주, 싱얼롱



남가주 서예반(대표 정인환·법대 54)과 영화감상반(대표 라철삼·문리대 64), 친목모임(대표 김병연·공대 68) 등 3개 동호회 합동 송년회가 지난 12

월 16일 LA의 '작가의 집'에서 열렸다.

이날 4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모여 가라오케 등을 즐겼다. 주훈(음대 69) 동문의 색소폰 연주, 김자성(의대 76)·박혜옥(간호대 69)·이명일(약대 72) 동문의 기타 연주와 싱얼롱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의 압권은 김항자(약대 61) 동문의



고전무용. 김동석(음대 64) 동문의 '노들강변'에 맞춰 신명나는 춤사위를 보여줬다.

경품 특등은 정인환 동문이 손수 붓으로 쓴 부채였는데 김동석 동문이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이날 모임은 모두 손을 손을 잡고 조용필의 '친구여'를 부르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김자성(의대 79, 왼쪽) 동문과 이명일(약대 72)기타 연주.

남가주 법대 송년모임

남가주 법대(회장 채규황) 송년회 겸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1일 LA 한인타운의 용수산 식당에서 열렸다.

5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가한 이날 모임은 김주혜(음대 07),

김성봉(음대 99), 김원선(음대 04), 제갈소망(음대 02) 등 음대 동문들이 출연, 분위기를 달궜다.

총회는 2023년 신임회장으로 김성호(64학번) 동문을 선임했다.





뉴욕 동창회의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3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동문들은 이날 댄스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즐겼다.



장학금 수여식.



신응남 전 미주 동창회장(오른쪽).

작은 음악회 · 장학금 수여식 ... 뉴욕 동창회 송년모임은 '축제의 장' 김영천 회장 '유임'

뉴욕 동창회의 총회 겸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3일 120여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의 3년만에 대면행사로 열린 이날 모임은 김영천(약대 72) 동문의 회장 유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등 현 집행부를 재신임, 힘을 실어줬다.

김 회장은 "동문들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 협력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기호(약대 57) 이사장도 인사말에서 "동창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며 더 많은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송년회의 하이라이트는 장학금 수여식. 소현지(법학) · 조한나(음대) · 이종성(사회복지학) · 권연진(의학) · 김선화(음대) 등 동문 유학생 5명과 데이비드 페도 · 정석 · 강민주 등 동문 자녀 3명에게 각각 3,000 달러씩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올해는 음대 주관으로 작은 음악회를 열어 더욱 뜻깊은 모임이 됐다. 박영광

동문은 신고산 타령과 Mattinata, 박종현 동문은 '목련화'와 'Una furtive Lagrima', 한예진 동문은 '꽃구름 속에서'와 'Il Bacio'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한예린 · 박종현 동문은 듀엣으로 Libiamo(축배의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달궜다. 한예린과 백종현 박영광 트리오는 'Funiculi Funicula'를 열창해 송년모임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만찬에 이어 마지막 순서인 여흥 프로그램은 박경희(음대 57) 동문의 피아노 독주로 막이 올랐다. 박 동문은 이날 리스트의 헝가리안 랍소디를 연주해 단숨에 관중들을 사로잡았다.

박 동문은 80대 중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삶의 희로애락을 다이내믹하고 빠른 리듬으로 표현해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모임은 MC 디카프리오의 재치있는 사회로 댄스 파티와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이 이어져 자리를 뜨는 동문들은 거의 없었다.

김영천 회장은 "내년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란다"며 동문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박경희(음대 57) 동문이 헝가리안 랍소디를 연주하고 있다.



이세리(음대 86) 동문과 박경희 동문.





시카고 55학번 이전 선배 동문들에 ‘주석컵’ 선물 김승주 회장의 애수에 젖은 색소폰 연주 ‘가슴 뭉클’ 골든클럽도 싱얼롱·라인댄스 등 다채로운 행사



김승주(간호대 69) 회장의 색소폰 연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난 11월 27일 나일스의 샤토 리츠 호텔에서 열린 시카고 동창회의 송년모임은 55학번 이전 원로 동문들에 ‘주석컵’ 증정이 하이라이트였다.

서울대 로고가 새겨진 컵은 송재현(의대 46)·강수상(의대 47)·송인선(법대 49)·조봉완(법대 53)·최의필(의대 53)·안창현(의대 55) 동문 등 80대 중반을 넘긴 여섯 분에 증정됐다. 그랜드 볼룸을 가득 매운 동문들은 이들 원로 선배들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1부 총회는 정은선(음대 04) 동문의 가야금 연주로 막이 올랐다. 정 동문은 밀양아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역대 회장들도 소개,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모임에선 동문 유학생들을 비롯해 동문 자녀, 한인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강민수(음대)·박기호(자연대)·박찬욱(공대)·김서진(프린스턴대)·박종욱(UMKC 의대)·양희란(일리노이대)·왕용욱(일리노이대)·이강은(일리노이대)·이태



정은선(음대 04) 동문의 가야금 연주

레사(하버드대) 등 모두 11명으로 1인당 2,000 달러씩 지급됐다.

이어 차기 및 차차기 회장 등 새 임원진이 소개됐다.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회장은 황치룡(문리대 65), 차차기 회장은 조규승(문리대 72) 동문이 선임됐다.

황찬주(인문대 84)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제 2부 순서는 김승주(간호대 69) 회장의 색소폰 연주가 압권이었다. 패티 김이 불러 히트한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을 애수에 젖은 듯 가을의 쓸쓸한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톤으로 연주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김수현 부부의 중창, 이태호(공대 87) 동문 딸들의 부채춤, 디스코와 윌츠, 스윙댄스 등을 즐겼다.

한편 시카고의 원로 동문 모임인 골든클럽(회장 윤봉수·간호대 69)은 12월 8일 롤링메도스 호텔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모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소정(음대 84) 동문의 싱얼롱, 이영우(문리대 65) 동문의 라인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날 하루를 즐겼다.

취재=이준수(공대 76·총무)



박중희(의대 69) 동문이 영문 시조 참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이태호 동문 자녀의 부채춤.



골든클럽 회원들의 라인댄스.



장학금을 받은 동문 유학생과 동문 자녀들.



지난 12월 4일 존스 크릭 세인트 아이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조지아주 송년모임. 팬데믹 이후 첫 모임이어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조지아 주 송년모임 54학번의 무대 ‘압권’ 런치클럽 · 바이블 클럽 등 소모임 활성화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지난 12월 4일 존스 크릭 세인트 아이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조지아주 송년모임은 가수 오승근의 트로트곡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다섯 번의 54학번 선배들이 꾸민 무대는 이날 모임의 압권이였다.

이종석(의대) · 노인석(문리대) · 임수암(의대) · 한성수(의대) · 최홍락(의대) 동문은 올해 87세 동갑내기들이다. 조지아주 동창회에서 최고 원로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야유회나 송년회 할 것없이 동창회 모임에서 ‘개근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항상 적극적이어서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들이다.

이날 송년모임에서도 다섯 분이 모두 턱시도와 빨간 보타이를 매고 무대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를 율동과 함께 흥겹게 불렀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며 앙코르 요청이 쇄도하자 이번



54학번 선배들이 꾸민 무대는 이날의 압권이였다. 배우자들도 무대에 올라 이날은 54학번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엔 부인들까지 ‘함세’해 ‘I Wish You a Merry Christmas’를 합창했다.
백혜영(음대 79) 회장은 “이렇게 많은 선후배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더욱 힘이 난다”며 송년회가 알차게 진행되도록 힘을 써준 집행부에 고

마움을 전했다.
이날 에모리대의 김태형(의대 57) 교수는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 ‘윤치호 선배를 기리며’를 소개했다. 애국가를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윤치호는 친일



행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적이 가려진 인물이다.
김 동문은 “윤치호는 에모리대 제 1호 한국인 유학생”이라며 “특히 60여 년 동안 일기를 썼다는 점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귀감이 될만한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 동문은 “누군가 이민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 것인가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윤치호 선배처럼 살면 된다고 말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치호 선배의 일기는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지정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송년회는 팬데믹 이후 첫 모임이어서 많은 동문들이 참여, 성황리에 치러졌다. 한 원로 동문은 ‘It was one of the best’라고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며 동문들이 더 자주 만나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

냈다.
배 회장은 앞으로 북클럽, 산행클럽, 런치클럽, 바이블 클럽 등 다양한 소모임을 활성화시켜 동문들에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장민구(공대 86 · 동창회 부회장)



뉴잉글랜드 3년만의 대면 송년회 양나래 동문의 '작은 음악회' 앙코르 쇄도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락다운으로 중단되었던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임영호·공대 72)의 송년모임이 3년만에 열렸다.

지난 12월 17일 보스턴 근교 세븐 스프링스 클럽하우스에 모인 동문들은 오랜만의 대면 만남에 안부 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부 행사는 환영사, 교가제창으로 시작하여 주최측에서 마련한 점심 식사, 새로 참석한 동문 소개, 지난 1년동안 있었던 행사를 회고하며 나누는 미주 동창회 및 뉴잉글랜드 지부 소식, 그리고 2022년 타계한 김호웅(법대 65), 성낙호(공대 60) 두 동문을 추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양나래(음대 08) 동문 진행의 작은 음악회로 시작된 2부 순서에서



지난 12월 17일 보스턴 인근의 세븐 스프링스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송년모임. 양나래 동문이 진행한 작은 음악회는 앙코르가 쇄도해 이날 모임의 하이라이트였다.

김유경(음대 72·전 동창회장), 김민정(사대 88), 김중성(상대 76) 동문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는 holiday 특송이 있었는데 특히 깊은 음색과 풍부한 성량으로 열창한 조지 거슈인과 '사운드 오브 뮤직' 타이틀송은 동문들의 열띤 환호와 앙코르 요청을 받았다.

이어 크리스마스 캐롤, 에델바이스, 고향의 봄은 참석자 전원이 한 마음으로 부르며 고국의 학창시절을 그리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차기회장 최진민(공대 72)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동문간 이야기 나눔 광장과 상품권이 달린 경품추첨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뉴잉글랜드 포럼 및 지역신문의 문화 칼럼니스트로 오랫동안 활동한 장용복(공대 58) 동문이 기증한 오페라와 서양 문학에 대한 저서 두권, 그리고 뉴잉글랜드 동창회 25년 기념 문집을 나누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취재=이경애(문리대 73)

플로리다 송년모임 가족분위기... NY 동문 골프투어도

플로리다 동창회(회장 최희덕·사대 68)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16일 웨스트 팜비치의 회장 자택에서 열렸다.

팬데믹으로 인해 두 해를 건너뛰고 열린 이날 모임에는 모두 27명의 동문이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교가 제창에 이어 크리스마스 캐롤

등을 함께 부르며 동문간의 우의를 다졌다.

국제적 휴양지인 플로리다의 특성상 겨울철에만 거주하는 동문들도 회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매년 1월에는 뉴욕 골든클럽 회원들이 플로리다를 방문, 골프투어를 하고 있다.

취재=최희덕(사대 68·동창회장)



지난 12월 16일 웨스트 팜비치의 최희덕 회장 자택에서 열린 플로리다 동창회 송년모임. 모두 27명의 동문들이 모여 우의를 다졌다.

남가주 음대 송년회 유학생 동문에 장학금 지급 유혜연 회장은 유임 결정



남가주 음대 동창회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13일 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수산에서 열렸다.

남가주 음대 동창회(회장 유혜연·음대 79)의 정기 총회 및 송년 음악회가

지난 12월 13일 LA의 용수산에서 열렸다.

손영아(음대 85) 총무 사회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성악과 2회 장인화 동문부터 기악과 16학년 김소정까지 약 40명의 동문이 모였다.

또한 박제환(문리대 75) 남가주 총동창회장, 김경무(공대 69) 남가주 총동창회 차기 회장, 한귀희(미대 68) 상임이사, 최용준(수외대 81) 상임이사, 이종열(상대 65) 상대 회장, 남종우(공대 62) 공대 회장, 김병완(공대 58) 남가주 동문 합창단장, 강정자(간호대 61) 합창단 이사 등 10여 명의 게스트도 참석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남가주 동문 합창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가을 음악회의 수익금 일부를 제갈소망(기악 02), 박선우(성악 13), 안석영(기악 13), 황보강(기악 14), 김수영(기악 15), 이정수(기악 15), 김소정(기악 16) 등 유학중인 7명의 음대 동문들에게 전달

하여 의미를 더 했다.

이날 송년 음악회에는 M. Oshima의 Kazabue 3:30(오보에 김수영), M. Ravel의 Piece en Forme de Habanera (트럼펫 안석영)가 황보강의 반주로 연주했고, Double Bass 듀오로 이정수와 김소정이 김광진의 편지와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연주했다.

또 제갈소망의 반주로 부총무이자 합창단 지휘자인 장진영(음대 88)이 G. Verdi의 오페라 La Traviata 중 제르몽의 아리아인 Di Provenza il Mar, il Suol을 불렀다.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송란(성악 81) 부회장, 손영아(성악 85) 총무, 장진영(성악 88), 윤희진(기악 99) 부총무, 최희선(기악 92) 재무, 김원선(기악 04) 부재무 등 임원은 이로써 공식 임원 활동을 마쳤다. 한편 내년 회장은 유혜연 회장이 연임하기로 결정됐다.

한영신의 헬스푸드(4)

단백질 음식 얼마나 먹어야 할까?

요즘처럼 영양에 관심있던 시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한국은 영양이 열풍이다. 먹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있는 것을 골고루만 먹으면 될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양이 과잉인 시대에 부는 영양제 열풍을 보면서 세상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영양에 대한 문제는 계속 기사화되는데,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니 영양제를 찾게 되는가 보다 하고 현상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영양에 대한 염려를 좀 덜어주고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이번에는 단백질 식품을 얼마나 먹을지를 알아보자.

영양사에게 누군가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문의가 온다면 성별, 연령, 활동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조사한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먹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으시는 주요 독자가 60대 이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니어를 기준으로 하루 단백질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제안해보려 한다.

영양적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밥에 해당하는 곡류 식품군, 고기 반찬에 해당하는 단백질식품군, 채소반찬에 해당되는 채소식품군 등 3가지 식품군의 식품을 갖추어 먹어야 한다.

이번의 주제 고기반찬에 해당되는 단백질 식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단백질 식품군에는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생선 및 해산물, 계란, 두부, 치즈, 견과류 등이 있다.

단백질 식품에 속하는 식품은 단백질의 함량이 많아서 단백질식품군에 모아

놓았는데, 단백질뿐 아니라 철, 아연, 마그네슘 등 다양한 무기질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백질 가루를 먹는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

근육이 감소되고 영양불균형의 위험

에 많은 견과류를 선호한다.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 먹는 양을 조사해보면 식사 때 단백질 식품을 먹기는 하는데 적절한 양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번에 먹는 양이 사람마

단백질 식품을 1회분량을 먹고, 한끼는 1.5회분량을 먹으면 된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두부 3조각(80g 정도), 저녁에 고기 작은 한 접시(90g정도)를 드시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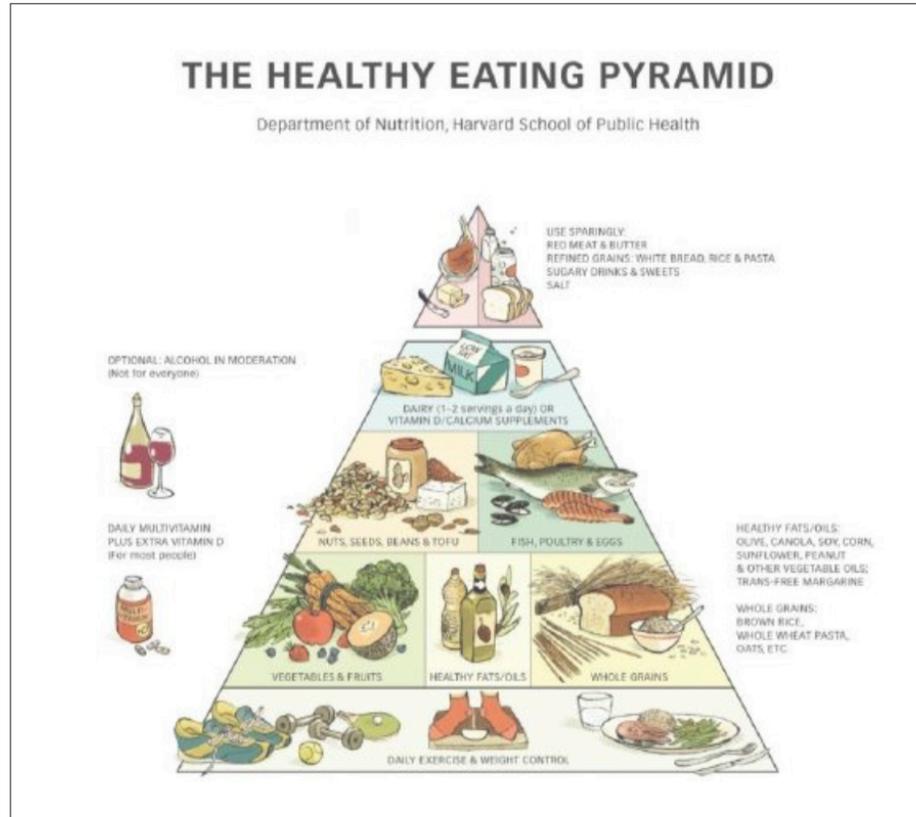
혹시 견과류를 하루 15알 정도를 따로 꾸준히 먹고 있다면, 식사 때 20%정도의 단백질을 줄이거나, 한끼 단백질 식품을 빼도 된다. 여자 어르신의 경우 남자보다 20-30%를 줄여서 먹는다. 예를 들어 아침에 견과류 5알을 넣은 시리얼, 점심에 두부 3조각, 저녁에 고기 60g정도면 좋다. 마찬가지로 견과류를 추가로 꾸준히 먹고 있다면 단백질 식품량을 20%정도 줄이면 된다.

단백질 섭취를 조사해보면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하는 양 극단을 보게 된다.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권하는 양의 2배 이상을 먹는 경우가 많다. 육류 중심으로 먹는 식습관을 가진 경우 성인병의 문제가 있으니, 적절한 양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반대로 일품요리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적절한 단백질 식품을 먹으면서 생활속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면 근력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양은 평균 체격과 평균 활동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평균보다 작거나 크다면 당연히 양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 앞에서 권장한 양의 비율을 고려해서 내게 맞는 양을 찾아보시고 건강한 100세를 준비하시기를 바란다.

〈식품영양학 박사〉



이 높은 노년기에는 어느 때보다 단백질 식품을 3끼 식사 때 빼놓지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하게 아침을 빵과 커피만 먹는 경우가 있는데 단백질 식품군과 채소 식품군이 빠진 불균형 식사이다.

단백질 식품으로 계란, 치즈, 견과류 중 하나 선택해서 같이 먹으면 좋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무기질과 필수지방산

다 다르겠지만 제대로 식사하는 저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란 1개에 해당되는 양(무게로 따지면 50-60g)정도를 1회분량으로 본다. 육류, 생선도 계란 하나에 해당되는 양을 눈대중으로 보고 어림해서 먹으면 1회분량이다.

수분이 많은 두부의 경우 1.2배, 순두부는 1.5배 정도가 1회분량이다. 남자 어르신의 경우 세끼 중 두 끼는 1가지

송년의 시



조봉완
법대 53

밤과 낮이 만나는 순간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순간

죄인이 성인의
탄생을 기다리는 순간

다망 다사의 지난 해 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는 순간

미시간호 수평선이
파랗게 변하는 순간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순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지는 순간

순간 순간 순간

희미한 영상이 보이는 순간
익숙한 얼굴이 지나가는 순간

혹시나
혹시나

잘알던 얼굴 같아
기쁨에 넘치는 순간

머물기를 기대하나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만남도
순간이었는데 ...

아쉬운 마음의
바람인가

모두 사라지는 순간

애뜻한 마음으로
연장 되길 바라는 순간

순간을 잡아
길게 되길 바라는 순간

다- 허망이라
깨닫는 순간

순간은
순간이라

순간에

사라지더라

빨간 옷, 많이 갖고 계세요?



이주희
음대 89

고백 1: 지난 52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경쟁심이 너무 없다'는 말을 종종 들어왔다. 피아노 전공하던 고등학교 때도 "네 친구 A는 너랑 똑같은 곡을, 똑같은 기간 동안 연습해도 저렇게 잘 치는데, 너는 왜 이정도 밖에 안되니?" 라는 얘기를 레슨 선생님께 매 주 들었어도 밥도 잘 넘어가고 잠도 잘 오던 나다. 사랑의 3각관계? 그런 건 내 인생에 있어본 적이 없다. 포기가 빨라서.

고백 2: Hand-Eye Coordination이 평균 이하인 나는, 요가에서의 '사바사나' 동작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잘 하는 운동이 하나도 없는 걸로 유명하다. 워싱턴 디씨 동창회 안에서 테니스 동호회, 골프 동호회, 아르헨티나 탱고 동호회 활동을 해왔지만, '남아서 따로 레슨 받아야 하는 친구'로 다른 동호회원분들께 짐만 되어오고 있는 처지다.

테니스나 골프 동호회처럼 규모가 큰 동호회에서는 내 이름은 몰라도, '아까 엄청 못 치던 개'라고 하면 대충 누군지 기억하시는 정도.

운동도 못하는 데다가 포기까지 빠른 그런 나지만, 어떤 운동경기를 관전할라 칠 때 나에게 응원해야 하는 팀만 정해주면 나는 그 경기장에서 가장 열렬, 아니 격렬한 응원자로 탈바꿈한다. 같이 응원하던 친구들조차도 멀~리 떨어져 앉고 싶어할 정도로.

'뭉쳐야 찬다(뭉찬)'라는 티비 프로그램을 매주 챙겨보는 일인으로서 2022년 FIFA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린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대한민국 팀 감독은 누구인지, 케이블 채널이 없는 나도 티비로 볼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우리 워싱턴 디씨 지부의 75학번에서 99학번까지의 동문분들이 계신 '아크로폴리스' 단톡방은 '구선생님'(a.k.a. google.com)보다 훨씬 친절한 나의 go-to 백과사전.

그 곳에 계시는 139 명의 선후배님들께 물어봐서 답을 못 얻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월드컵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질문을 올렸다. 역시 바로바로 답이 오가고, 그걸 계기로 함께 경기를 보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어서, 32강 조별리그의 첫 게임이 있던 11월 24일 목요일, 바로 Thanksgiving Day 아침 일찍 우리집에서 모이게 되었다.

조별 리그의 첫 상대팀이었던 우루과이는 월드컵에서 두 번 우승을 해본 경험이 있는 나름 강팀이라고 들었지만, 우리들 모두의 positive energy

했지만, 오늘은 나처럼 정신줄 놓은 듯 응원해주는 선후배님들과 함께 있으니 광화문 한복판이 부럽지 않다.

추가 시간도 얼마 없었던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의 막바지에서도 여전히 0:0인 상태에서 추가시간 약 2분 정도 남았을 때 거짓말처럼 갑자기 티비가 회색으로 변하면서 메시지가 떴다. "Too many devices are connected." YouTube TV를 구독하면서 가족 계정으로 캔사스 사는 동생(이주현, 미대 92) 가족과 서비스를 공유했었는데, 모두가 다 각자의 device로 축구를 보고 있었나 보다. 어쩔 딱 2분 남은 이 시점에 이

경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전신에 닭살이 돋으면서 이러다 닭이 될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었다. 그러던 손흥민이 월드컵 개막 불과 3주 전에 있던 경기에서 안와골절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었는데, 수술후에 마스크를 끼고 월드컵에 참가를 할거라는 얘기를 듣고는 "아이고, 애야..."하고 엄마같은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스모키 아이즈'(주: 어두운 아이새도우를 눈꺼풀 위아래에 바르고 블랜딩하여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눈화장법)로 화장만 해도 상하전후좌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던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고백 4: 2022년 Thanksgiving 날을 맞아 감사한 일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다.

"명절날, 그것도 아침 8시에 시작하는 경기를 보고자, 새벽같이 일어나 평소에는 잘 입지 않을 범한 빨간 옷을 찾아 입고, 먹거리 하나씩을 준비해 오셔서 한 마음으로 세상 떠나가라 박수치고 응원해주신 선후배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우루과이 전에 이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있었던 가나와의 경기, 금요일에 있었던 포르투갈과의 경기, 사흘뒤 월요일에 있었던 브라질과의 16강 게임도 함께 보러 와 주신 모든 선후배님들, 특히 매 경기마다 별다방 커피와 샌드위치를 선사해주신 박상근 워싱턴 디씨 지부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2일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역전골을 넣은 순간, 모두가 세상 가장 아름다운 두성으로 "아아아아아~!!!!" 소리 지르며 다 같이 끌어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폴짝폴짝 뛰던,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을 함께 해서 정말 행복하다.

우리와 같은 시각에 경기를 하던 가나 vs 우루과이전에서 후반전 추가 몇 분 사이에 우루과이가 한 골을 더 넣을까 봐 한 마음 한 뜻으로 손톱을 물어뜯던 그 순간까지도 감사하다.

고백 5: 빨간 셔츠가 하나 뿐인 나는 매 경기 때 마다 빨래통에 있는 빨간 셔츠를 들었다 놔다 고민을 해야했다. "한 번 빨래 통에 들어간 옷을 어떻게 또 입어?"와 "리사이클은 좋은 버릇이야" 사이에서 나름 깊은 고민을 거듭했던 나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도 다 끝난 이 마당에 쇼핑을 나선다. 빨간 옷 사러. 대한민국의 축구는 계속 되기 때문에.

〈워싱턴 디씨 동창회 총무〉



동문들이 필자의 집에 모여 월드컵 한국 대표팀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

“나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도 다 끝난 이 마당에 쇼핑을 나선다. 빨간 옷 사러. 대한민국의 축구는 계속 되기 때문에”

가 전달되길 기원하면서, 내게 있는 줄도 몰랐던 빨간 색 셔츠를 옷장에서 꺼내 입고 응원에 돌입했다. 사실 오프사이드도 잘 볼 줄 모르는 '축알못'으로서 함께 월드컵 경기보자고 명절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을 오시게 했다는 것이 좀 머쓱하긴 했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 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나란 걸 알기에, 당당히 티비 앞 1열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외치기 시작했다.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머리를 쥐뚝고 하기를 20분쯤 지났을까, 내 뒤로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소리를 내고, 박수를 치고, 머리를 뚝고 계시는 걸 발견했다. 아... 이런 기분 넘 좋다.

내 비록 2002년 월드컵을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벽이라 소리가 크게 못 지르고 소파쿠션에 얼굴을 박고 울면서 응원하기는

될 수 있지? 2분안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그냥 모든 분들을 작디 작은 부엌 티비 앞으로 오시라고 외치는 일 밖에는. 부엌에 있는 19인치 가량의 작은 모니터 앞에 다들 빼곡히 모여서 마지막 2분을 관전했다.

Personal space를 이만큼 무시해본 것도 코비드 이후 처음이었다. 0:0 스코어로 그대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강팀에 대항해 실점하지 않고 끝까지 잘 싸워준 대한민국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백 3: 올해 여름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 밤에 잠이 안 와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다가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 경기를 보게 됐었고, 너무 부끄러운 얘기가기는 하지만, 그 때 까지 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었다. "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



김인종
농생대 74

치매 예방? 동창회에 나오세요

못미치면서 장밋빛 전망이던 이 회사의 주식은 두달 전 까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었다. 그런데 최근 이 약이 환자의 인지능력 저하를 막는 효과가 27% 정도 있다는 데이터 수집자료가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쏠리고 이 회사 주식이 상승세를 탔다.

당초 FDA가 승인했던 약효만큼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의약계는 이 약이 치료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다른 약이나 치료법과 함께할 때 그 효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할 것이라는 분석들을 내 놓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이 약 사용자의 21%는 뇌가 붓는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데이터에서 아직 기다려 볼 시기라고도 주장한다.

치매는 환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함께 힘들게 하는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껏 획기적인 치료약이 없다. 우리는 치매, 노망으로 몽똥그려 부르지만 알츠하이머와 디멘시아(dementia)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노인 치매 증상이다.

확실한 것은 이 치매 증상이 외부적으로 발현되기까지 약 2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70세에 치매가 왔다면 50세부터 뇌의 저 구석에서 아주 조그맣게 천천히 시작됐다는 것이다. 즉 인지 행동기능의 저하가 20여년에 걸쳐

진행되는 결과가 치매이다.

치매는 최소한 발병 예상 20년 전부터 예방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치매예방에 대한 연방보건국의 8가지 원칙은 정상혈압유지, 혈당관리, 적절한 체중 유지, 운동, 금연, 과음 금지, 청각 상실 방지, 충분한 수면 등이다. 모두 당연히 지키고 싶은 원론적인 이슈이다. 다만 지키고 싶어도 유전, 환경 등으로 못지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런 제약을 벗어나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예방약의 하나가 '동창회 참석'이라는 것이다(어려운 말로 cognitive-behavioral therapy 에서 나온 학설이라면 신뢰를 더 할 분들이 계실 것이다).

동창회는 단순한 자리 채우기 뿐만 아니라 '봉사와 희생'이라는 행동양식을 첨가함으로써 인지기능의 숨은 부분을 활성화 하고 개발해 준다. 그 소득은 '보람과 깨달음'으로써 '웃음'이나 '기쁨'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엔돌핀이나 건강 촉진 호르몬을 신체에 제공하게 된다.

보람, 희생 등의 행동양식을 통해 개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활력, 활성화를 느낄 수 있는 호르몬 분비를 경험하게 된다. 웃음과는 또다른 차원의 '의식 고양'이다.

동창회에 각종 사고 모임을 찾아 등산을 가고, 바둑을 두고, 함께 영화를 보고,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거나 에어로빅 모임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는다. 어떤 동창회에서는 탕고 왈츠 춤 교실도 있는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모임이다.

이같은 자기 만족 활동에 추가해서 봉사, 희생, 베품의 활동에 나선다는 것이 동창회 참석을 통한 치매예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같은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고 동창회는 이런 활발한 대인 관계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커뮤니티로 '치매 예방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싫어!' '안할래!'를 많이 말할수록 치매에 가까이 가 있다는 증상이라고 의사들은 진단한다. 동창회 참석이 '좋아!' '할래!'가 되도록 구성원들이 서로 노력하고 봉사와 희생을 한다면 동창회는 '인지능력 기능저하를 예방'하는 좋은 예방약이 될 수 있다. Opinion이라기 보다는 theory이다.

만나서 수다를 떨어라. 수다는 여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부동반 모임에서 부인들이 모여 신나게 수다를 떨 때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 멀건히 앉아 있다. 이 기운 떨어진 남편분들은 치매예방 '턱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수다는 대화와 사고 능력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얼굴 턱 근육을 움직여 주고 두뇌, 눈, 귀 등의 혈류를 개선하면서 뇌 인지능력 저하를 막아준다. 이런 수다 뿐만 아니라, 각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창회'라는 '인지행동 개선 예방약'을 처방해 본다.

유명 제약회사 Biogen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각광받으며 출시됐던 아두헬름(Aduhelm)의 효능이 기대에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선생님, 기본적인 생활도 힘겨운 이들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자선단체 직원들이 찾아와 기부를 요청하지만 노인은 모진말로 거절한다.

"구호소로 보내면 되겠네." 그래도 이 영감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쓴다. "그곳에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가 험상궂은 얼굴을 하며 쏘아 붙인다. "죽는 게 낫겠다면 그렇게들 하라고 하세요. 남아도는 인구도 줄이고 좋구먼."

그는 누구일까. 매년 이맘 때 쯤이면 누구나 한 번 쯤 떠올리게 되는 소설 속의 캐릭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쿠르지가. 출판된 지 170년이 넘었는데도 인종과 국적, 종교를 떠나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명작이다. 이유가 대체 뭐길래.

소설이 스쿠르지의 '본 어게인'을 담

아냈다고만 알고 있으면 너무 단순한 이해일 터. 작가는 당시 가진 자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스쿠르지의 입을 빌려 통렬하게 꾸짖었다.

사회적 신분엔 걸맞는 도덕적 책무, 곧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외면하는 자들에 한 방을 날렸으니 그 통쾌함이란.

배경은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제국 최전성기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번영을 누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다.

스쿠르지로 대표되는 부자들은 분배와 복지가 나라를 망친다며 반발하고, 오죽했으면 디킨스가 스쿠르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 싶다.

책이 나온 때는 1843년.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 세상에~. 그 무렵 '아편전쟁'이 터졌지 않은가. 당시 영국의 부자들은 청나라에서 수입한 차의 우아한 향과 신비스런 맛에 푹 빠졌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스쿠르지의 '바 햄버그'

중국과의 결제수단은 원래 은이었는데 이 귀한 금속을 주기 아까웠다. 여가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아편. 인도에서 재배한 것을 중국에 몰래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 돈으로 차를 수입한 것이다. 은을 아편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해야 할지.

이 바람에 수백만 명이 중독돼 대륙은 황폐화의 길을 걷게 된다. 급기야 청이 아편금지령을 내려 전쟁이 터졌는데, 결과는 뻔했다. 청군 20만 명이 1만 명도 채 안 되는 영국군에 박살이 났다. 아편수출에 걸림돌이 없어지고 전리품으로 홍콩까지 손에 넣고.

영국은 이처럼 인류 역사 상 유례없는 부도덕한 전쟁을 일으켰다. '신사의 나라'라면서, 이후 서구열강들이 중국을 이리 뺏고 저리 찢어 대륙은 거덜나고 말았다. 얼마나 치욕적이었으면 시진핑의 '중국몽(차이나 드림)' 캐치프레이즈가 '아편전쟁을 잊지 말자'가 됐을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돈이 된다면 마약이건 뭐건 가리지 않

았던 그때 그 시절. 스쿠르지와 같은 인간들이 어디 하나 들어있겠는가. 윤리도덕이 실종된 사회인데 종교라고 성할 리 없겠다.

조카가 성탄절 이브에 인사를 건넨다.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스쿠르지가 얼굴을 찡그리며 내뱉는다. "바 햄버그(Ba Humbug)." 꼭 주술사가 외우는 주문처럼 들린다. '흥, 무슨 허튼소리'라는 뜻이라고 한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싫다'는 의미로도 흔히 쓰인다.

글로벌 경제가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미국만큼은 여전히 호황국면이다. 디킨스가 살았던 시대가 요즘 같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본다.

유령들과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한 스쿠르지. 소설 끝자락에 이 자린고비는 가난한 아이들에 푸짐한 밥상을 차려준다.

그의 입에선 바 햄버그 대신 '메리 크리스마스'가 흘러나오고. '돈=우상'의 등식이 깨지는 순간이다.

〈편집고문〉

Tale of Winter, 1972, the Leaving & My Years 떠나던 시절 1972-1973



조중행

Choh, Joong Haeng., MD., FACS

"The man who finds his homeland sweet is still a tender beginner; he to whom every soil is as his native one is already strong; but he is perfect to whom the entire world is as a foreign land." Hugo of St Victor & Edward Said.

Living in Korea in the early 1970's was depressingly low and dark grey.

Most of us, youngsters with some education were wondering where would be our morning.

I dare say for many of us, tempered by the war, educated at SNU under modern US influence one way or another, and especially if you had some gumption, it was quite natural to dream of further education or training in the USA.

As a rising third year resident in cardiothoracic surgery and graduation looming at SNU Hospital, my life was very busy at the front of the field of heart & lung surgery, but with very poor clinical outcomes in early 1970s' South Korea.

Sometime in the late fall of 1970, following the fall congress of the American College of Surgeon, a Korean Surgeon from the USA, a SNU graduate from two decades prior, visited SNUH and gave a lecture in the Surgical Grand Round. His name was 이형모, HM Lee M.D., a junior professor at the Medical College of Virginia, back then a major surgical center in the USA. The topic was 'Extracorporeal porcine liver perfusion for hepatic coma in liver cirrhosis' and we were told it was presented in the 'Forum' section of the ACS congress. It was a type of surgical research, the impossible, something you could only dream of in Korea those days.

Prof. Kim Soo-tae(김수태), who later

performed the first liver transplant in Korea, reminisced about the early days of the department of SNUH surgery, during the Korean War and Busan Refugee years(1950-1951 or so) and how much he had learned from Dr. HM Lee, then a senior resident, before he left Korea for his new training at the Medical College of Virginia, Richmond. Today, the Transplant Center of MCV, Richmond, Virginia carries his name.



Doing an open heart surgery in late 1990's at the Advocate Sherman Hospital, Illinois.

books and started to have a nagging sense of uncertainty of my future in Korea in spite of occasional discussion with the senior staffs, me being in the future scene of SNUH thoracic surgery department.

To me, being a thoracic surgeon in Korea as a gradua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id seem like a respectable calling, even in 1960's-1970's Korea, where the post-war economy was desolate and politics unstable.

electricity in the office, no running water, no telephones. I had to use a public phone or the phone in the police station to call my parents. Those were the days.

I came from a large conservative family who upheld traditional Confucian value over many generations. I understood certain moral obligations imposed upon me to maintain family tradition, wherever I may end up, most of all, as one of direct descendants of Jungam, Jo Gwangjo (1482-1520).

I kind of knew my parents' wish was for me to finish training in Korea with my fiancé Sook, take short fellowships in US and come back, settle in a University setting in Seoul with her.

And yet, with only textbook knowledge of what was going on in the outside world, I had to feel the pure air of real heart surgery on my face from a trench in the American continent that would take more than a minimum of 7 years of training in general & cardiothoracic surgery in the real world, where they would not recognize any of my surgical training in the Korean system.

That meant the need to get a VISA to deal with my immigration status, a sense of guilt in the deep core of my heart for my teachers, and friends to be left behind, and most of all to my parents. Looking back that might have been the seed of my future thoughts of a professional return at some point later in life.

Sook, my fiancé, left one year earlier and started anesthesiology residency at Northwestern University in Chicago, one of the highly regarded programs in that field.

In early 1973, I stuffed couple of shirts, suits, the two volume Sabiston Textbook of Surgery, and Zollinger's Surgery Atlas into my old carpet-bag and carefully put a couple of hundred dollars into my pocket, and started for Los Angeles, California, leaving my teary eyed mother and father behind.

I did carry a pair of Metzenbaum surgical scissors and Potts' forceps given to me by Prof. Jin Byung Ho,

〈Continued on page 23〉

“

In early 1973, I stuffed couple of shirts, suits, the two volume Sabiston Textbook of Surgery and Zollinger's Surgery Atlas into my old carpet-bag...

”

A young resident was in the audience, whose goal was to be a cardiovascular surgeon but was somewhat disheartened by the rather poor outcomes of heart surgeries at SNUH back in those days.

The content of the work/research and the lecture was impressive. On that day, in the Auditorium A, SNUH, 1970, he gave a 'flower sermon'(as per Jack Kerouac or 拈華示衆) to me.

After successful MS degree with a dissertation paper at SNU graduate school, now a seemingly shameful one, I was in the middle of simultaneous PhD course in the graduate school as well, in my heart with little hope of meaningful research down the road, the kind you read in the

And I was having good times because there was my cadre of good old friends around in the medical community and other non-medical fields with whom I frequented in warm friendly escapades.

Soon, however, most of my close friends who were not in the medical field, and who had graduated from the college a couple years earlier, began to leave the country, one by one, for further study abroad in the USA, then sending me messages from across the Pacific, while I was suffering and serving the mandatory duty of a public health officer(무의촌 보건 지소장) under the dictatorial October Yooshin-martial law in a deeply isolated country side in Cheolla-namdo province. I had no

the SNU chief of Surgery, at the end of the first year residency in 1970. With my name engraved on them, are still in my drawers collecting dust.

Leaving the good old city of my home, Seoul, I duly arrived in Los Angeles where Sook was eagerly waiting at the airport and then to-

tally got lost into the flood gates of this new world, a 29 years young, and scared of the pains of surgery residency waiting for me somewhere in the new continent.

I said to myself as I stood in the middle of a strange new street, in LA, "Hey, Joong-Haeng, you will be no one in this new place. Be prepared.

With many rejection letters and some acceptance letters and many sleepless nights over many years at on-call rooms of hospitals, America was slowly opening its doors to this young man of 29 years of age.

At USA, alone, 1973 (미국 도착, 1973) Letter to Mother 1: (어머님 전 상서:1)

Walking down the jet bridge off NW Airline at LAX

I felt on my face the west wind of the new world waking me up cold. "You were in tears for many days." I was told.

I thought I was ready for the alien cities of the USA, then, where I was alien to them.

I was out of the womb on the one-way ticket.

and took my first steps into the alien streets.

In laughter and tears, I've learned to live here with Sook, the little ones, Candice and Mark.

It was your love, my young family that guided me through my new path here, made me happy being hard at work, move on, move forward, move up,



Kite flying with granddaughter Abigail, spring 2022, at St. Charles, Illinois.

through the platinum crucibles I've chosen.

Long afterwards tonight, I found the unspoken promises kept.

As a doddering old fool I smile to myself.

It is over 53 years since I graduated from Medical School and started

post graduate training and 42 years since I started my clinical practice as a cardiovascular surgeon here in this community in the western suburb of Chicago. I later spent 8 years in total at the Bundang Campus of Alma Mater Hospital, running the Cardiac Center & the International Health Care Division.

It was a very busy life and I was not a good family man. I was blessed with a wife who has been a tower of strength and two children, well settled in this country, who usually take sides with their mother when I have squabbles with her.

Years passed and the seasons have changed forty nine times in this country since I arrived in early 1973.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at the time of my complete retirement, there were no physicians at my age or older at my US hospital here and I was the oldest physician in the SNUH during my last 6 years there as well.

For those of us in my generation who are getting old, with the usual "should have" and "could have, -looking-back sometimes brings a sense of pathos that life is fleeting.

And yet, as I close, I feel "Though nothing can bring back the hour

Of splendor in the grass, of the glory in the flower;

We will grieve not, rather find Strength in what remains in behind;"

From William Wordsworth's "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 FROM RECOLLECTIONS OF EARLY CHILDHOOD"

천양곡(의대 63) 동문의 수필집 '흰머리 남자, 주름진 여자' 출간



천양곡 의대 63

'흰머리 남자, 주름진 여자'는 평생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천양곡 동문의 회상록이며 고백록이다.

시카고의대 부속병원에서 정신과 수련의를 마친 천 동문은 일리노이 주립병원 정신과 의사로 30년, 다시 개업의로 18년을 보내고 은퇴했다. 사람은 누구나 한 편의 소설이다. 그 또한 한 편의 소설로 살아왔다.

저자가 '우리의 뿌리 고국' 편에 "고향 강경(충남 논산)에서 군산까지 가는 통통배 여객선의 고동 소리가 그리 듣고 싶어 매일 같이 같은 시간 뒷산에 올라 가슴 조이던 나를 회상해 본다" 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늘 아득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고향이든 세월의 먹먹함이 그리움을 낳았고 그 누구도 그리움의 본질은 알 수 없다.

그는 코엘로의 소설 '연금술사'에서 넓은 세상이 보고 싶어 집을 떠나는 목동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한 문장을 통해 그리움을 분석한다.

"네가 세상을 다 돌아본 후에야 네가 자란 산천과 우리네 여인들

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에게 한 환자가 있었다. 다섯 살에 입양되던 해 양부모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니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사라졌다. 그는 또 다른 양부모 밑에서 잘 자라 좋은 직장을 얻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는 항상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친부모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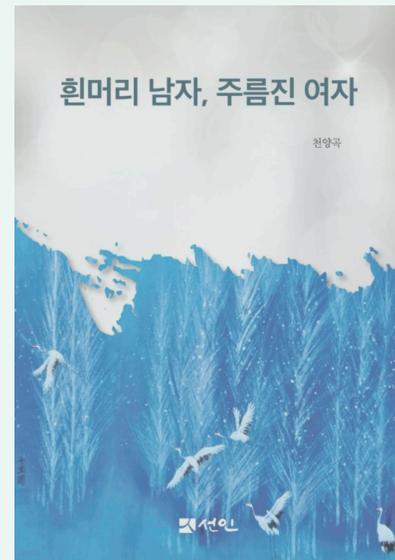
그는 삶의 의미가 점점 열려지고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다 정신과 의사 천양곡을 찾았다.

"당신이 부럽군요." 환자는 저자가 고향 금강의 물줄기와 하구 서해안을 둘러보고 오겠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환자는 정체성을, 그리움을 찾고 싶어 했다. 그것은 천양곡도 마찬가지다.

천양곡은 말한다. "불행했던 과거든 아니든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삶에 대한 의욕이 높아진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내 환자가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면 인빅투스 시인처럼 세상을 원망하며 살기보다 계속 자기 뿌리를 찾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스스로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붙잡고 싶은 인연' '떠나 보내고 싶은 기억' '삶의 굴레의 한 가운데서' '따분한 인생살이' '연필 가는 대로' 등 총 5부로 나누어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메시지를 전한다.



구독 및 광고 문의는
213-503-6964
hongsunrye@gmail.com



★ 아주단독!! 맞춤형 대형 리무진 버스

32인승 22년형 새버스 도입!

아주만이 한인 체형에 맞춘 특별버스 도입! 아주 미서부 투어는 프리미어 버스로! 미서부는 물론 모국관광,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세계일주 여행은 아주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진사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앤젤롭캐년

★★★★★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의 고품격 서비스

업계 유일 40년 무사고!

아주투어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철저한 안전경영 덕분에 업계에서 유일하게 '40년 무사고'라는 경이적인 안전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0년 역사의 관광회사

40년 역사! 미주 최대의 한인 여행사이자 최장수 기업입니다. 84년 창립된 이래 늘 1위 자리를 지킨 진정한 1등 여행사! 믿을 만한 관광은 아주투어 뿐입니다.

봉사하는 기업! 아주투어

IMF 외환위기, 금모으기 운동의 효시가 된 '모국에 달려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고, 한국에 외화가 가도록 '모국관광' 상품을 최초로 개발. 다양한 무료관광 봉사 진행

믿을만한 1등 관광회사

40년 한우물. 직접 발로 뛰며 개발한 여행상품은 업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박평식대표는 지금도 한 달에 한번 이상 현지로 손님과 함께 투어를 떠납니다.

최강의 호텔 네트워크

라스베이거스의 3대 체인 MGM(Bellagio, Luxor 등), Caesars(Caesars, Harrah's 등), Sands(Venetian, Palazzo) 컨트랙을 보유.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최고의 호텔

업계 최고의 가이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있는 아주투어 가이드는 고객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풍부한 정보, 재치와 유머로 고객의 힐링투어를 책임집니다.

고객만족도 전미주 1등 **US이주투어**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CST 2052210-10

213-388-4000
서울지사 T.02-522-8686/E.seoul@usajutour.com
833 S. Western Ave #35-A, L.A., CA 90005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서예반 모집

지도: 정인환(법대 54)

일시: 매주 화 10AM~12PM
장소: 작가의 집 동리홀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故고광선(공대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서치원(공대6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남가주 - 이기준(법대54)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남가주 - 벤자민 홍(문리53)
네바다 - 정상진(상대59)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해경(문리67)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워싱턴DC - 이태영(법대6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약대59)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옥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필라델피아 - 이만택(의대52)
필라델피아 - 신의석(공대53)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법대58)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경숙(간호68)
김기형(상대75)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수영(사대57)
김재영(농대62)
김정빈(공대66)
나두섭(의대66)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박중수(수의58)
방명진(공대73)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신영찬(의대63)
심상은(상대54)
안병일(의대63)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명선(상대58)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미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환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중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호동(공대58)
홍선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권영국(상대60)
김승호(공대71)
김중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배정희(사대54)

서영숙(간호67)
석창호(의대66)
신응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욱(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보건69)
故박경민(의대53)
김광수(문리73)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조만연(상대58)
홍지복(간호70)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방은호(약대43)

박평일(농대69)
서휘열(의대57)
오인환(문리63)
이내원(사대58)
이선구(문리65)
이윤주(상대63)
최지원(의대61)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장병진(공대61)
정태(의대57)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옥(약대50)
한만섭(공대49)

시카고

강영국(수의67)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미네소타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민흥기(문리61)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호숙(사대65)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오하이오

김용현(경원66)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현민(공대84)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커네티컷

故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영우(공대55)
김현영(수의58)
서중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53)
이상강(의대70)

휴스턴

박진섭(의대67)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2.7.1 - 2023.6.30; 제2차 회기: 2023.7.1 - 2024.6.30) **블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법 58) 강동순(법 59) 강윤희(간 46) 강창만(의 58) 강호석(상 81) 강홍제(상 53) 고윤석(공 62) 권기상(대 72) 김건진(문 62) 김경(문 63) 김경수(사 54) 김경욱(미 61) 김광은(음 56) 김교복(농 63) 김국간(치 64) 김근(농 78) **김남영(공 53)** **김동산(법 59)** 김명숙(농 58) 김문엽(농 83) **김범수(문 61)** 김병연(공 68) 김병완(공 58) 김상찬(문 65) 김석규(공 66) 김석홍(법 59) **김성호(법 64)** 김수향(간 68) 김순길(법 54) 김순자(치 57) 김영덕(법 58) 김영중(치 66) 김옥경(생 60) 김원탁(공 65) 김원호(약 63) **김일영(의 65)** 김은숙(미 62) 김정(치 59) **김정호(농 59)** 김중범(상 64) **김중표(법 58)** **김준일(공 62)** 김재영(농 62) 김진식(공 66) **김태환(문 78)** 김학철(의 55) **김희창(공 64)** 나두섭(의 66) **노명호(공 61)** 이승욱(문 59) 문경호(문 59) 문병길(문 61) **박명근(상 63)** 박부강(사 64) 박서규(법 56) 박영욱(사 55) **박용(문 89)** 박우선(공 57) 박원준(공 53) 박은숙(미 62) 박인수(농 64) 박인창(농 65) **박임하(치 56)** 박지경(생 60) 박정모(문 66) **박중수(수 58)** **박찬호(농 63)** 박창규(약 59) 박취서(약 60) 박호현(의 52) **박홍근(공 64)** 박희자(음 68) 방명진(공 73) 배동완(공 65) 백승호(치 55) 백혜란(미 70) **서동영(사 60)** **서명희(농 67)** **서세진(음 62)** 서의원(공 66) 서치원(공 69) 성낙호(치 63) 성주경(상 68) **손기용(의 55)** 손학식(공 61) **송명국(문 81)** 신건호(법 53) 신동국(수 76) **신영찬(의 63)** 신정연(미 61)

심재호(공 75) 양태준(상 56) 오윤표(음 56) **오선웅(의 63)** **오찬수(약 57)** **오형원(의 53)** 원용민(공 58) 위종민(공 64) 유석홍(상 61) 유영자(음 63) **유이중(농 74)** 유준석(공 52) 유경민(법 55) 윤석철(상 60) **윤희성(치 65)** 이광훈(치 65) 이근섭(치 54) **이건일(의 62)** 이덕승(의 54) 이미정(의 78) 김민(농 59) 이범도(치 74) 이범식(공 61) 이서희(법 70) **이성찬(문 65)** **이소희(의 61)** 이영수(상 60) 이영현(간 70) 이원익(문 73) 이원택(의 71) **이익삼(사 58)** 이장길(치 63) **이재권(법 56)** 이재룡(공 71)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종모(간 69) **이준호(상 65)** 이진영(의 65) 이창우(공 54) 이창신(법 57) 이채진(문 55) 이청광(상 61) 이해영(공 56) **이호(음 92)** 이호진(간 74) 이흥표(의 58) 이희중(공 68) 임낙균(약 64) **임동규(미 57)** 임동호(약 55) **임문빈(상 58)** 임재영(공 59) 임창희(공 73) 장근숙(간 73) 장기열(치 55) **장기창(공 56)** 장동석(문 66) 장소현(미 65) **장원경(미 74)** 장윤희(사 54) 장인숙(간 70) 전낙관(사 60) 전원일(의 77) 전상욱(사 52) 정병혁(농 70) 정수민(의 66) **정연웅(상 63)** 정창규(약 59) 정재형 정진우(의 66) 정형민(문 71) **정황(공 64)** **조경애(음 64)** 조상하(치 64) 조상호(농 51) 조선주(간 69) **조재국(농 67)** 주민희(음 51) 주정래(상 65) 차중근(농 56) **최복철(공 70)** **최영구(상 61)** 최영순(간 69) 최영지(미 62) 최용완(공 57) 최중권(문 59) 추교훈(농 63) **한동수(의 60)** 한성구(상 53)

한원민(의 59) 한종철(치 62) 한홍택(공 60) 한효동(공 58) 홍병각(문 55) 홍선례(음 70) 홍선일(공 71) **홍수웅(의 59)** 황건홍(공 55) **황현상(의 55)**

뉴욕

강교숙(간 73) 강에드워드(사 60) 계동휘(치 67) **고애자(음 57)** 곽노섭(문 45) 권영국(상 60) 권문웅(미 61) 권정덕(의 58) 김영천(약 72) 김광현(미 57) 김광호(의 66) 김기택(수 81) 김동환(약 60) 김문경(약 61) 김병권(문 63) 김복영(간 69) 김세환(공 65) **김승호(공 71)** 김영철(문 62) 김영수(법 66) 김영숙(약 53) 김원주(의 54) 김용연(문 63) 김우영(상 60) 김우현(의 59) 김유순(간 64) 김정희(약 56) **김정희(간 69)** **김창수(상 64)** **김창화(미 65)** 김현중(공 63) 리준우(음 65) 문석면(의 52) **민인기(의 67)** 박건이(공 60) 박경희(음 57) 박상원(음 69) 박수인(의 59) 박순영(법 56) 박승화(간 69) 박재은(미 63) 방준재(의 63) **배상규(약 60)** 배정희(사 54) 변호련(간 63) 서랑(의 63) **서충선(사 57)** 석창호(의 66) 선종철(의 57) 성기로(약 57) 손상욱(사 52) 손완배(농 70) 송근숙(간 66) 송기인(의 60) 송용길(대 69) 신두식(의 58) 신응남(농 70) 신춘희(간 56) **안태홍(상 65)** 양명자(사 63) 양성택(상 66) 오용호(의 66) 오용환(약 68) 우규환(사 60) 이상영(상 59) 원인순(문 67) 유재섭(공 65) 유택상(문 58) **윤병남(사 62)** 윤영섭(의 57) 윤인숙(간 63) 윤철(문 54) 윤희정(문 59) 이강홍(상 60) 이명중(공 72) 이상근(경 84) 이상무(의 56)

이영일(의 60) 이영재(사 58) 이정은(의 58) 이재덕(법 60) 이재진(의 59) 이태봉(의 56) 이태안(의 61) 이해청(약 62) 이형근(수 60) **전성진(사 54)** **전병삼(약 54)** **정동성(상 58)** 정해민(법 55) 정화용(사 61) 조남천(사 59) 조대영(공 61) **조득환(의 61)** 조중수(공 64) 차국만(상 56) **최승웅(의 61)** 최영태(문 67) 최광현(시 63) 최한용(농 58) 최혁(문 72) 최형우(법 69) 최병용(문 71) 한승순(간 70) **허선형(의 58)** 허영자(약 63) 허용웅(상 63) 허유선(생 83) 현건섭(공 55) 홍정표(음 67) 홍종만(공 64)

뉴잉글랜드

곽노균(상 51) **김경일(공 58)** 김기남(간 67) 김선혁(약 59) 김성곤 김동욱(사 58) 김형범(문 57) **박영철(농 64)** **송미자(농 62)** 윤영자(미 60) 윤상래(수 62) 이강원(공 66) 이규진(약 60) **이금하(문 69)** **이은주(음 73)** **정선주(간 68)** **정정욱(의 60)** 조만연(상 58) 주창준(의 50) **최선희(문 69)**

네바다

김백수(의 57) 김상순(상 67) 이학은(약 57) **정상진(상 59)**

미네소타

남세현(공 67) 문성민(공 88) 변우진 송용길(대 69) 신두식(의 58) 신응남(농 70) 신춘희(간 56) **안태홍(상 65)** 양명자(사 63) 양성택(상 66) 오용호(의 66) 오용환(약 68) 우규환(사 60) 이상영(상 59) 원인순(문 67) 유재섭(공 65) 유택상(문 58) **윤병남(사 62)** 윤영섭(의 57) 윤인숙(간 63) 윤철(문 54) 윤희정(문 59) 이강홍(상 60) 이명중(공 72) 이상근(경 84) 이상무(의 56)

하계현(공 64) 한영신(생 86)

북가주

강윤희(간 72) **강재호(상 57)** 강정수(문 61) 권오형(사 61) 김기덕(문 74) **김정희(법 56)** 김현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문 64) 노상규(공 60) 민병덕(상 69) 박경용(약 63) 박서규(법 56) **박영훈(공 72)** 박종성(법 53) 부영무(치 72) 손창순(공 69) 송영훈(상 57) **신규영(공 64)** 안호삼(문 58)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위장호(의 67)** 이강우(문 59) 이상원(공 65) 이상형(공 57) 이은수(사 64) 이장우(문 72) 이정남(공 63) 이창환(공 56) **임승래(문 66)** 임정란(음 76) 전병련(공 54) 정지선(상 58) 정준일(간 67) 정한규(의 63) **조태욱(사 60)** 천동우(공 63) 최경선(공 65) 한상봉(수 67) **홍병익(공 68)** 황동하(의 65) 황만익(사 59)

샌디에고

오계환(공 64) 윤진수(의 57) 이문상(공 62) 이영신(간 77) 이휘영(법 59)

시카고

강영국(수 67) **구경희(의 59)** **김길준(의 59)** 김갑중(의 57) 김규호(의 58) 김동희(공 66) 김사직(상 59) 김성일(공 68) **김승주(간 69)** 김용주(공 69) 김용환(공 71) 김현주(문 61) 노영일(의 62) 박정일(의 61) **박창욱(공 56)** 서상현(의 65) 소진문(치 58) 송재현(의 46) 신석균(문 54) 안신훈(농 61) 안영학(문 57) 안창현(의 55) 오명자(간 60) **육길원(사 59)** 윤경순(사 61) 윤봉수(간 69) 이경미(미 69) 이덕수(문 58) 이동균(공 75) 이상희(간 68) 이승자(사 60) 이시영 이영섭(수 56) 이영우(문 66) **故 이윤모(농 57)**

이종일(의 65) 임영신(의 56) 임현재(의 59) **전현일(농 62)** 정승규(공 60) 정연학(공 63) 최대환(의 53) **최혜숙(의 53)** 최희수(문 67) 한의일(공 62) 한재은(의 59) **홍청일(약 57)** 황소나 황치룡(문 65)

알래스카

윤제중(농 55)

오레곤

김영자(간) **최용성(의 55)** **한국남(공 57)**

워싱턴DC

강길중(약 69) 고무현(법 57) **곽명수(문 65)** 권정도(치 63) 권철수(의 68) 김동훈(법 56) 김명자(법 52) 김명철(공 60) **김영란(사 58)** 김용덕(의 53) 김윤호(공 64) 김용환(치 88) 김해식(공 59) **김희주(의 62)** 나연수(사 54) 박영태(상 63) 박영호(공 64) 박은희(미 68) 박인영(의 69) 박일영(문 59) 박홍우(문 61) 백순(법 58) 백용현(공 64) 서윤석(의 62) 석균범(문 61) 양광수(공 73) 오광동(공 52) 오인환(문 63) 우관해(음 63) 우제형(상 54) 원종민(약 57) 유달(의 61) 유영준(의 70) 유정식(수 60) 유한창(공 69) 유홍열(문 74) **이건형(수 54)** 이규양(문 62) 이내원(사 58) 이선구(문 65) 이상배(수 57) 이수안(공 54) 이연주(치 88) 이영덕(사 61) 이영목(공 59) 이윤주(상 63) 이재승(의 55) 이충국(의 52) 이준영(치 74) **이진상(공 57)** 이철수(공 61)

이해청(약 62) 정원자(농 62) 조영희(문 66) 조화유(문 61) 천건희 최경수(문 54) 최동호(문 68) 최재귀(미 63) 한의일(공 62) 한재은(의 59) **홍청일(약 57)** 황소나 황치룡(문 65)

워싱턴주

김인배(수 59) 김재호(상 54) 김재훈(공 72) 류성열(공 72) 민영기(공 65) 박진수(의 56) 변종혜(법 58) 양용관(수 62) **윤석진(문 64)** **윤태근(상 69)** **이길승(상 57)** **이명자(간 74)** 이원섭(농 77) 이회백(의 55) 장대홍(공 65) 장현길(공 60) 전병택(상 65) 정영자(사 56) **최준한(농 58)**

유타

김인기(문 58)

조지아

김기준(공 61) 김영서(상 54) **김중구(수 73)**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한수(농 56) 서광모(공 65) 송용덕(의 57) 오경호(수 60) **이종석(의 54)** **임수암(공 62)** 임한응(공 60) 정선휘(공 65)

캐롤라이나

김기현(문 52) 마동일(의 57) 이종영(음 58) 한광수(의 57)

커네티컷

김기훈(상 56) 라찬국(의 57) 신경호(의 57) **최창승(의 52)** 홍성휘(공 56)

콜로라도

이정화(의 61)

테네시

김경덕(공 75) 서갑식(공 70)

텍사스

김장환(공 81) 박영규(사 66) 박유미(약 62) 박태우(공 64) 송요한(문 73) 유희(농 56) **윤영주(문 60)** 이석호(농 78) 전중희(공 56)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천양곡(의 63) 황명규(공 61)

필라델피아

강준철(사 59) 김경희(생 71) 김국간(치 64) 김규화(상 63) 김순주(치 95) 김영우(공 55) 김정현(공 68) 김재술(약 58) 김진우(공 62) 김현영(수 58) 배성호(의 65) 서의원(공 66) 서종민(공 64) 성기호(상 59) 순정호(약 57) 손재욱(생 77) 송성국(공 50) 신선자(사 60) 신성식(공 56) 심영석(공 76) 안세원(의 62) 엄종열(미 61) 오진석(치 56) 윤경숙(문 59) 윤종나(음 57) 이규호(공 56) 이만택(의 52) 이문호(공 53) **이상숙(생 74)** 정덕준(상 63) 조영호(음 54) 조정현(수 58) 조화연(음 64) 주기목(수 68) 지홍민(수 61) 최중무(상 63) 최현태(문 62) 한동휘(문 57)

하와이

김달욱(사 45) 김용진(공 50) 박성재(상 57) 안은식(문 55) 이재형(수 61) 하인환(공 51) **최영윤(사 51)**

하트랜드

김경숙(가 70) 오태호(의 56) 이상강(의 70) 정민재(농 70) 최은관

휴스턴

김영일(의 55) 김충열(의 56) 박석규(간 59) 유한창(공 69) 이길영(문 59) 최관일(공 54) 최성호(문 58) **최용천(의 53)**

룩키마운틴스

이경화(공 56)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우크라이나 기부금 2021.7.1 - 2023.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강창홍 (의63) 50	오레곤	커네티컷	샌디에고	조지아
강신용 (사73) 200	고애자 (음57) 50	김상준 (상67) 200	김기훈 (상56) 200	임춘수 (의57) 200	오레곤 300
강영호 (공67) 1,000	권영국 (상60) 200	하와이	최창승 (의52) 500	워싱턴DC	플로리다 300
권철희 (의78) 125	김영천 (약72) 1,000	김용진 (공 50) 100	캐나다 밴쿠버	권철수 (의68) 100	오하이오 300
권기상 (대72) 105	김명철 (공60) 200	시카고	장희순 (문75) 388	최재귀 (미63) 300	알래스카 200
권봉수 (문 64) 1,000	김승준 (공 71) 1,000	김현주 (문61) 100	광고후원금	워싱턴주	남가주 3000
김경무 (공69) 2,000	김완주 (의54) 75	소진문 (치58) 400	남가주	이원섭 (농77) 150	캐롤라이나 200
김기형 (상75) 1,400	김은희 (간78) 200	이영섭 (수56) 75	강호석 (상81) 240	오레곤	하와이 300
김남진 (음53) 200	김중원 (사58) 50	이용락 (공48) 1,000	고석자 (인72) 600	김영자 (간) 100	미네소타 600
김동석 (음64) 200	김준우 (음65) 200	임영신 (의56) 100	김경무 (공69) 400	플로리다	
김영면 (문68) 1,200	문석면 (의52) 200	정의철 250	김양희 (음77) 3,700	오석일 (의64) 100	Charity Fund(나눔)
김상찬 (문65) 6,000	박순재 (의63) 200	최희수 (문67) 200	김원택 (공65) 480	필라델피아	남가주
김새담 (범55) 25	서량 (의63) 75	한경진 (상59) 200	김은중 (상59) 600	손재욱 (생77) 100	이범식 (공 61) 100
김영 (수63) 500	선종철 (의57) 100	텍사스	김자성 (의79) 1,500	장학기금	임낙균 (약 64) 3850
김영보 (사60) 200	신영남 (농70) 2,400	박영규 (사66) 200	김진빈 (공66) 500	남가주	필라델피아
김영희 (치66) 75	오용호 (의66) 200	이석호 (농78) 200	나두섭 (의66) 200	박원준 (공53) 300	손재욱 (생77) 100
김영희 (간54) 50	이강홍 (상60) 200	진기주 (상60) 500	나정자 (간70) 400	이범식 (공61) 100	시카고
김영희 (미62) 1,000	이재택 (범60) 75	황명규 (공61) 200	미주동창회(11대) 1,000	전상욱 (사52) 100	강영국 (수 67) 100
김영희 (상59) 400	이전구 (농60) 500	필라델피아	미주재단 16,000	한흥택 (공60) 50,000	우크라이나 기부금
김영희 (범66) 100,000	조남천 (사59) 350	윤경숙 (문59) 200	민일기 (약69) 500	뉴욕	남가주
김영희 (의66) 200	차수만 (약71) 300	이만택 (의52) 400	박수경 (생84) 4,500	선종철 (의57) 100	구상선 50
김영희 (공61) 50,000	최한용 (농58) 1,500	이성숙 (생74) 200	박재환 (문75) 500	신영남 (농70) 200	노명호 (공 61) 1,000
김영희 (사70) 200	최형 (음72) 200	이승공 (의63) 200	박찬호 (공58) 300	이강홍 (상60) 500	유익영 100
김영희 (문66) 1,000	한승준 (간70) 150	정태광 (공74) 100	서동영 (사60) 480	미시간	이정남 200
김영희 (공57) 500	허선행 (의58) 400	지흥민 (수61) 200	서치원 (공69) 2,500	이정화 (음66) 175	이호진 (간74) 100
김영희 (공53) 200	홍종만 (공64) 200	워싱턴	안혜정 (생77) 800	북가주	서진 (간56) 3,000
김영희 (미62) 200	미네소타	민영기 (공65) 75	양수진 (간80) 500	신규영 (공64) 200	안혜정 (생77) 300
김영희 (수58) 12,000	문성인 (공88) 50	이명자 (간74) 800	이기준 (범54) 500	김현주 (문61) 100	한흥택 (공60) 1,000
김영희 (음72) 300	네바다	조지아	이병선 (상58) 1,000	이용락 (공48) 300	홍종화 (약74) 500
김영희 (농55) 500	정상진 (상59) 350	정양수 (의60) 25	이범모 (치74) 250	최혜숙 (의53) 100	북가주
김영희 (공69) 10,000	미시간	김용건 (문48) 200	이병준 (상55) 1,200	커네티컷	이창우 (문72) 100
김영희 (상68) 200	김희주 (의62) 225	송용덕 (의 57) 200	이상대 (농80) 240	故유시영 (문68) 10,000	뉴욕
김영희 (공59) 200	오동환 (의65) 400	워싱턴DC	이원택 (의65) 2,200	워싱턴 DC	민준기 (공59) 100
김영희 (의63) 200	윤효윤 (의56) 200	강길중 (약69) 500	이종모 (간69) 480	오인환 (문63) 175	조상근 (범69) 1,000
김영희 (생77) 200	이성화 (의65) 100	고무환 (범57) 200	임춘택 (상68) 400	조지아	조지아
김영희 (음56) 200	이정화 (음56) 200	권철수 (의68) 200	정인환 (범54) 600	이충석 (의54) 200	김용건 (문48) 200
김영희 (약57) 200	이재승 (의55) 75	김영준 (범56) 200	주영세 (사59) 400	이용무 (상66) 300	유성무 (상66) 300
김영희 (치56) 1,050	뉴잉글랜드	김영환 (치88) 200	차민영 (의76) 7,500	오레곤	오레곤
김영희 (의62) 200	윤상래 (수62) 500	김영환 (경84) 1,000	최무식 (약66) 240	한영준 (사60) 100	한영준 (사60) 100
김영희 (상58) 500	박영철 (농64) 100	박은희 (미68) 100	최홍준 (수81) 400	워싱턴DC	워싱턴DC
김영희 (공61) 575	박중승 (의56) 200	박희일 (농69) 900	한효홍 (공58) 300	최재귀 (미63) 200	최재귀 (미63) 200
김영희 (상55) 3,000	정선주 (간68) 100	박홍우 (문61) 200	홍훈정 (음70) 400	커네티컷	커네티컷
김영희 (의61) 75	주창준 (의50) 200	변광록 (간72) 200	뉴욕	유시영 (문68) 500	유시영 (문68) 500
김영희 (치63) 50	북가주	백수 (범58) 200	김기택 (수81) 240	워싱턴	워싱턴
김영희 (범57) 500	부영무 (치72) 200	서윤석 (의62) 200	김승호 (공71) 1500	이길송 (상57) 100	이길송 (상57) 100
김영희 (약64) 1,000	최경선 (농65) 1,000	석균범 (문61) 200	석창호 (의66) 240	시카고	시카고
김영희 (문66) 200	한만섭 (문48) 500	석보화 (사68) 200	신영남 (농70) 240	이용락 (공48) 200	김신웅 (생59) 300
김영희 (사60) 75	한상봉 (수67) 500	오인환 (문63) 600	이전구 (농60) 240	조중행 (의63) 100	재환수 (사61) 200
김영희 (의77) 75	황만익 (사59) 200	유영준 (의70) 175	워싱턴DC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김영희 (의65) 10,000	샌디에고	이건형 (수54) 25	남욱현 (경84) 9,300	손재욱 (생77) 100	손재욱 (생77) 100
김영희 (대92) 1,000	이휘영 (범59) 75	이내원 (수58) 75	이내원 (사58) 1,000	워싱턴 DC	워싱턴 DC
김영희 (공64) 260	임춘수 (의57) 200	이선구 (문65) 275	이태영 (범60) 1,800	서희열 (의57) 300	서희열 (의57) 300
김영희 (공57) 100	플로리다	이연주 (치88) 200	모교발전기금	지부분담금	지부분담금
김영희 (문59) 220	오석일 (의 64) 200	이영목 (공59) 200	남가주	샌디에고 550	샌디에고 550
김영희 (범64) 25	임필순 (의54) 200	정평희 (공71) 200	박우선 (공57) 300	뉴욕 3,000	뉴욕 3,000
김영희 (공66) 500	조경호 (의66) 200	조화유 (문61) 75	박원준 (공53) 700	뉴잉글랜드 1,000	뉴잉글랜드 1,000
김영희 (미68) 2,000	하트랜드	테네시	배병욱 (음 58) 300	워싱턴DC 2,000	워싱턴DC 2,000
김영희 (공60) 200	고 차봉희 (의51) 500	김경덕 (공 75) 100	이범모 (치74) 200	필라델피아 1,000	필라델피아 1,000
김영희 (문65) 200	이상강 (의70) 21,000	캐롤라이나	홍선일 (공71) 100	시카고 2,400	시카고 2,400
김영희 (의55) 350	최은관 500	한광수 (의57) 500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2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100 (2022.7 - 2023.6)	<input type="checkbox"/> \$240 (2022.7 - 2023.6)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200 (2022.7 - 2024.6)	<input type="checkbox"/> \$480 (2022.7 - 2024.6)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중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외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 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 380-5060 (LA, CA)

(714) 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 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l1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오늘까지 일구어온 모든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엔 더 가슴 뛰는 이야기가 꽃피울 수 있도록,
귀하의 가문만을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합니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영속적 가문 자산관리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웰씨앤와이즈 패밀리오피스

Next Generation Education
다음세대 교육

Investment Strategy
투자전략

Concierge
컨시어지

Philanthropy
필란트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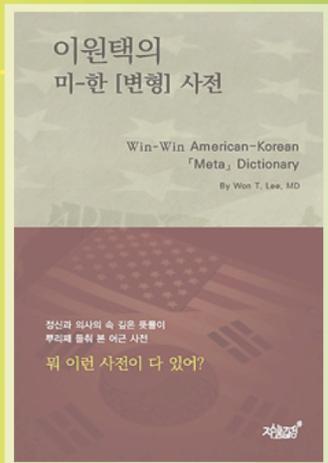
 Wealthy & Wise

■ Baltimore ■ Honolulu ■ Seoul
■ 410.469.9532 ■ 345 N. Charles St, Baltimore, Maryland
■ 808.427.8434 ■ 1003 Bishop St, Suite 2700, Honolulu, Hawaii
■ www.wnwinc.co.kr ■ info@wnwinc.co.kr
■ 이태영 (법학과 60) 웰씨앤와이즈 설립자, 상임고문
■ 박상우 (경영전문대학원 06) 웰씨앤와이즈 한국법인 대표이사

정신과 의사 (의대 '65)

이원택의 미·한 변형 사전

21세기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설식 풀이)를 통해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대체 한글] 로 표기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처방} 사전이다.



IT 용어, 신조어·콩글리시 등 부록 22편
총 1236쪽 양장제본, 정가 35불
구매처: LA 반디서점
(213)739-8107, bandibookus.com



H A A N
LAW COPR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정확하고 강력한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계약법·상법·부동산법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설립

보험회사·보상법
노동법·고용법·인권법

이민법·가정법
연방/주법원 항소·상고

3699 Wilshire Boulevard, Suite 86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639. 2900 | Fax: 213. 639. 2909 | Email: kthaan@haanlaw.com | www.haanlaw.com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종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중(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종(미)
 IT 국장: 심재호(공)
 문화 광고국장: 홍선례(음)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이준수(공)
 장만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연(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 이메일 news@snuuaa.org | 웹사이트 www.snuua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차기 회장 **김경무**(공대68)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범섭**(공 79)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이명자**(간호 74) T: (206)218-8887
 dmialee@gmail.com
 차기 회장 **하혜숙**(간호 77) T: (425)240-5633
 annaparkha@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룩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236)513-0376
 p21.snuainvan@gmail.com
 sphro17@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김승주**(간호 69) T: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차기 회장 **황치룡**(문리 65) T: (847)895-2814
 chi.whang@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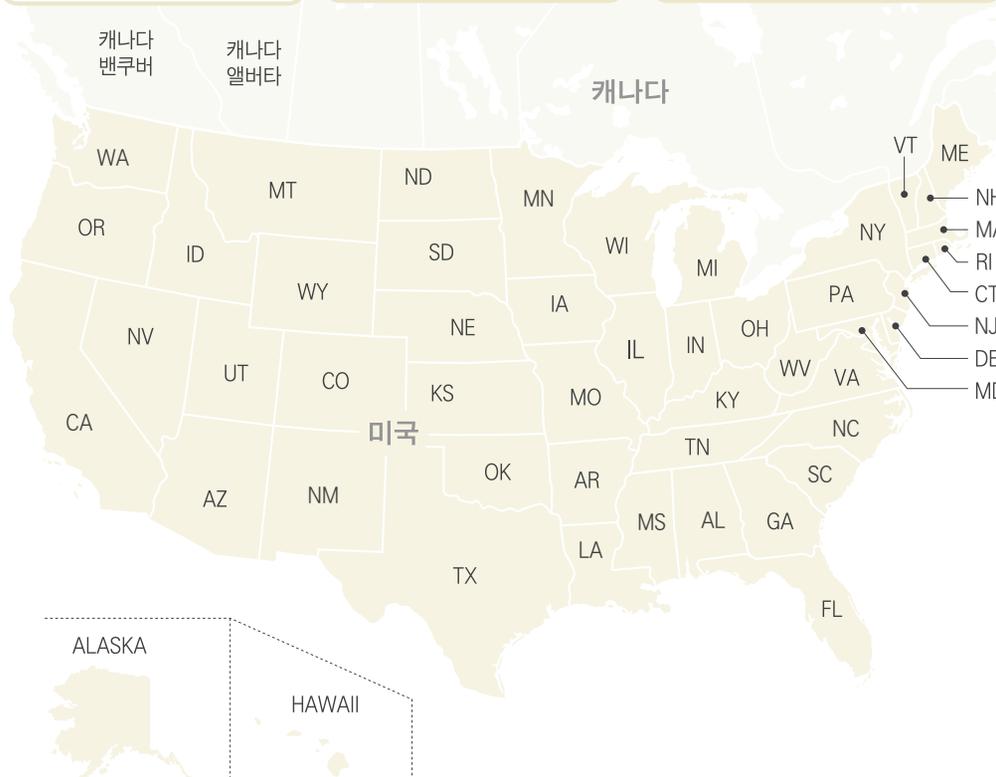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차기 부장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김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해(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이종태**(사대 71) T: (267)266-2881
 leejt153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l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희(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이종건(경영대 84)

한국 재산과 미국 재산 상속을 오랜 경험의 상속법 전문 이종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국 재산상속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주법을 알아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미국에서 한국 재산과 미국 재산의 유언장 작성
- * 미국 재산 리빙트러스트 작성
- *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 * 한국 상속세 절세
- * 한국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절세



JKLAWUSA, A PROFESSIONAL CORPORATION

한미국제법률사무소

USA 3435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787-3107 Fax. (714) 494-7649

Korea Hanmi International Law Firm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길 11, 310호(역삼동, 한화진넥스빌)
Office. 02-561-9797 Fax. 02-561-9696

www.Seoulmedicalgroup.com

차민영(의대 76)

빠르고 정확한 리퍼!

메디케어 HMO 주치의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
빠르고 정확한 리퍼로 꼭 필요한 전문의를
찾아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는
어르신들이 진정한 건강 영웅입니다!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시니어 여러분들이 건강영웅!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들임을 알려드립니다.